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 58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 영 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윤 송 희

2011년 2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윤 송 희

윤송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2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II. 본론	4
1. 슈타이너 교육사상의 철학적 배경	4
(1) 인지학의 성립배경	4
(2) 인지학의 성격	8
2.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10
(1) 슈타이너의 인지학(Anthroposophy)적 인간관	10
가. 통합적 인간관	11
나.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체	11
다. 네 가지 구성체(신체, 생명체, 감성체, 자아)	13
(2) 인지학적 발달 단계론	17
(3) 인지학적 기질론(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18
(4) 슈타이너의 인간과 교육에 대한 접근	24
가. 신체를 통한 정신의 발현	25
나. 자기 주도적 감성 체험	26
다. 살아있는 경험의 총체 - 홀리스틱교육	26
3.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 적용 및 분석	27
(1) ‘독일’의 발도르프(Waldorf)학교	28
가. 발도르프 학교의 운영방침	28

나.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	31
ㄱ. 포르멘(formen)	31
ㄴ. 에포크수업(Epochenunterricht)	34
ㄷ. 오이리트미(eurythmie)	36
ㄹ. 습식 수채화	38
(2) ‘한국’의 대안학교 - 과천 자유학교	43
4.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에 적용한 미술지도 방안 연구	61
(1)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을 적용한 미술과 수업 지도안	61
가. 단계별 포르멘 수업	62
나. 색채 체험 수업	67
다. 오이리트미 퍼포먼스	80
(2) 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이 우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90
가. 교육예술론에 따른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의 역할	91
나. 영혼의 예술가로써의 교사	93
 Ⅲ. 결론	94
 참고문헌	97
 국문초록	101
 ABSTRACT	10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세계가 투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면,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의 세상은 거듭되는 생성만이 축적되고 누적되는 ‘창조적 증식’의 세상이다. 이러한 문명의 진보 속에 정보화, 세계화, 자동화는 더욱 촉진되었고, 이제는 웹을 통한 컴퓨터 기반을 넘어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대중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인간을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육체적 안녕과 편안함을 가져다 준 반면, 정신적인 고립과 비인간화라는 문제를 양산해 내었다.

이제, 현대사회는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내면적 성숙과 화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래의 사회를 예감하며 준비하는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창조성과 전인적 인간을 표방하는 21세기 교육의 테마는 교과외의 탈 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측면과 창조적 학습과 구성주의적 방법론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미술교육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통한 ‘미적인간’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2.27~1925.3.30)의 ‘발도르프 학교(Waldorf)’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슈타이너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예술’이며, ‘예술이 곧 교육’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교육의 화두를 ‘인간’으로 되돌리고자한 ‘인지학(Anthroposophy)’을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지평을 열었으며, 모든 교육과정이 예술로써 창조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모든 교수자는 ‘예술가’가 되어야한다는 교사관에 대한 분명한 제시는 발도르프 학교만의 독창적인 교

육이념이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대안적 교육은 비인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예술을 통한 감성의 회복’의 좋은 지침서로써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사유를 돌이켜 보고, 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및 행정적 측면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찰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는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의 목표를 두고 인간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은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 학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 인간관의 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빗대어 학생들의 특성을 끼워 맞춘다.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와 획일적인 교육의 관습을 낳게 하는 논리적 귀결이다. 슈타이너 교육사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잠재력을 보게 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주의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슈타이너 철학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발도르프학교의 공통된 특징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론의 1장에서는 슈타이너의 생애와 이론적 등장배경을 연대기적 순서로 기술하고, ‘인간학으로서의 인지학’이라는 테제 속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을 살펴본 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인간의 4가지 구성체’와 ‘3단계의 발달이론’ 그리고 ‘기질론’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그의 사상이 ‘발도로프 학교’로 현현되었던 시점의 현실적 배경과 특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 볼 것이고, 이러한 사유의 바탕이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적용되기까지의 변화를 따라가 볼 것이다.

본론의 3장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의 설립배경과 특징을 발단으로, 독창적 수업방식인 ‘포르멘(formen)’과 ‘오이리트미(Eurythmy)’, 그리고 주기집중 수업인 ‘에포크(Epochen Unterricht)’가 실제 학교 수업에서의 적용된 예들을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슈타이너의 사상과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방법이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 중등학교 미술수업에 대안점을 제시함으로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II. 본 론

1. 슈타이너 교육사상의 철학적 배경

1) 슈타이너의 인지학 성립배경

슈타이너의 인지학 사상은 그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린시절의 경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지학적 사상을 정립시키게 된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1861년 크랄예벡¹⁾에서 철도 공무원을 하는 아버지 요한 슈타이너와 친절하고 신중한 성격의 어머니 프란체스카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여러 지방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특히 오스트리아의 포트샤흐에서의 행복한 6년간의 시절을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슈타이너는 노이되플 학창시절 일찍이 기하학적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기하학에 몰두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재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정신세계의 체험이 감각세계의 체험과 마찬가지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했다. 난 기하학에 몰두하면서, 영혼 속에는 개인 고유의 힘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느낌을 통해 난 감각세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할 정당성을 찾아냈다...물론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신생활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여덟살 전에 이미 갖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그 본질성을 구분했다.²⁾

1872년 슈타이너는 철도회사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빈의 노이슈타트 실업계 학교에 입학하여 1879년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불

1) 크랄예벡(Kraljevec); 당시 헝가리 영토였으나 현재는 크로아티아에 해당함

2) 크리스토프 린덴베르크(1998), 『슈타이너』, 한길사, p.20

때까지 이곳 학교를 다닌다. 그는 수학, 물리학, 기하학, 화학 등의 책에 관심을 갖고 혼자 공부하여 정신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자연현상이 창조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념을 얻고자하였다.³⁾

그 후 그는, 1879년에 빈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지만, 철학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슈뢰어 교수와 브렌타노 교수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괴테 연구를 시작한다. 괴테의 문학작품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슈타이너는 점차로 광학, 식물학, 해부학 등의 강의를 들으며 괴테가 과학자였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괴테가 자신의 과학적 저술을 통해 자연과 영혼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을 보고, 슈타이너는 차츰 영혼을 경시하는 현대 과학은 무생물계에 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괴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식물, 새, 구름, 색채 등의 자연계의 모든 배후에는 그 원형인 ‘관념’이 고차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의 지각과 거의 일치하는 괴테의 사상에 용기를 얻어서 슈타이너는 독자적인 우주론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한다.⁴⁾

대학시절 슈타이너는 쉴러의 ‘인간과 미적 교육에 관한 서간문’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문제의식인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간을 연계하는 실마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글이라고 평가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관련성을 찾고 연계하려는 슈타이너의 관심은 훗날 발도르프학교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괴테의 손자가 죽으면서 괴테의 유품을 기증해서 받게 된 바이마르의 소피대공부인은 이 유품을 정돈 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슈타이너를 부르게 되었고 1890년에 괴테 저서 전체를 출판하는 작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7년 반 동안 바이마르에서 일하면서 189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95권의 책을 출판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소피”출판사의 7권의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괴테에 관한 글 등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하였고 1894년에 ‘자유의 철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괴테의 자연관과 인간관에 영향을 미쳐 그 자신의 ‘인지학’을 형성하게 한다. 훗날 ‘인지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3)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p.28-29

4) 정미리(1998), 슈타이너의 전기 분석을 통한 인지학의 탄생 및 발전 배경에 관한 연구, p.90

책의 기본적인 사고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자유철학’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자유의 이념이다.

인식의 한계란 수, 양, 무게 등에 의해서만 연구할 수 있다는, 감각적 세계에 인식을 한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인식을 감각에 한정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감각적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야말로 참된 실재이며, 인간은 이 초감각적 세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이 본능, 욕망, 정념 등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자유롭다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것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슈타이너는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인간 내면의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자유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

대학 시절 슈타이너는 짐머만(Robert von Zimmerman)⁶⁾교수로부터 미학이론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수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서클 활동을 통해 고대 그리스 플라톤 철학, 중세의 신비주의적 기독교 전통 그리고 신지학 등의 동양적인 지혜와도 만나게 되었다.

신지학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블라바츠키⁷⁾, 베산트⁸⁾ 등에 의해 확립된 신비주의적 세계관 또는 그에 입각한 학문을 말한다. 불교의 카르마 사상, 동·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 영적 진화론 등이 결합된 독특한 세계관이다. 신지학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 혹은 영혼은 불멸하며, 일련의 재생과정을 거처 지고한 신적 불교로 진화해 간다. 또한 신지학은 신학과 종교철학 상의 합리주의를 반대하고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인식능력을 넘어서서 신비적인 계시와 직관에 의해 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 깊은 뜻을 파헤치려는 것을 말한다.

신지학을 포함한 신비주의자들은 관념에 빠져있는 어떤 것과 정신이 통합

5)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33

6) 로베르트 짐머만(Robert von Zimmerman),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미학자, 빈 대학 교수.

7) 헬렌 페트로나 블라바츠키(1831~1891), 러시아의 심령술사, 작가, 범신론적 철학, 종교체계인 신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신지학 학회 공동설립자이다.

8) 애니 베산트(1847~1933), 영국의 여류 신지학자. 1909년에 신지학 협회의 회장이 된다.

되기를 원하고 슈타이너는 관념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과 통합되기를 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의 정신적 지각은 관념을 신비적으로 경험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적 경험에 관련해서는 신비주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⁹⁾

그러나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신지학은 신지학회의 지도자인 블라바츠키, 베잔트 등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슈타이너는 정신세계에 대한 체험을 종교적인 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로 간주하고, 정신세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내용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내면의 인식의 힘을 만들어 내는 근원적인 힘은 신비주의적 감정이 아닌 인식의 문제로 간주한다.

하지만 신지학 협회와의 교류는 나중에 자아적 인식과 성찰 속에서 탄생하게 될 그의 인지학 사상에 큰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영적인 관찰결과를 학문적으로 근거 짓고자 했을 때, 철학의 영역에서 인간인식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그는 당시에 주도적이었던 경험적 연구방법들이 인식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인간영혼의 주관적인 체험 내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모두 배제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즉, 윤리적인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은 학문이 초감각적인 것의 경계 앞에 멈추어서 초감각적 영역을 신비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정신적 문맹이라고 보았으며, 초감각적인 힘들의 작용도 물리적 자연력과 똑같은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인식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⁰⁾

이와 같이 슈타이너의 사상은 신지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신지학과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는 결국 1913년 신지학회에서 나와, 계속적으로 키워온 자기의 인지학으로 독립시키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인지학회를 설립한다.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의 형성배경을 인지학사상이 정립되기까지의

9)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10) 정혜영(1997)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사상적, 이론적 기초: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한국교육학회, pp.1-16

과정으로 그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의 교육관은 인지학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교육관의 형성배경은 인지학 사상의 형성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교육의 기초로서의 인지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는 발도르프학교의 근본사상이며 공교육과 다른 발도르프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형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지학 사상의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인지학의 성격

인지학은 하나의 사상의 흐름이나 세계관을 일컫는 말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용어의 어원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학은 사람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sophia’로 이루어져 있다. ‘ant-hropos’는 파생적으로 ‘turning upwards’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anthroposophy’는 ‘삶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의 세계관에 해당하는 ‘Weltanschauung’(Welt:세계, Anschau-ung:바라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렇게 이름 붙였을 것이다. 영어의 가장 가까운 말로는 ‘세계에 대한 개념’(conception of the world)정도 되지만, 이것은 너무 건조하고 학구적인 말이다.¹¹⁾ 인간은 세계라는 거대한 우주 안의 소우주로서 존재하며, 인간만이 세계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학은 ‘본질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을 정신과학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은 슈타이너가 정신을 실제로 간주하고, 무의식이나 최면상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슈타이너는 정신과학을 인간이 내적 정신세계를 경험하는 의식과 능력을 확대해 가는 것에 관한 과학으로 해석한다.

프랭클은 인지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 첫째, 인지학

11)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49-50

은 슈타이너가 기초를 세운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뜻한다. 둘째, 인지학은 이런 방법으로 얻은 연구 결과들을 뜻하며, 이것은 초감각적 본질을 탐구하는 정신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을 보완한다. 셋째, 인지학은 정신과학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들을 인간 개인의 삶과 인류공동체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¹²⁾

즉, 인지학은 단순히 인간에 관한 지식이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관해 알아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슈타이너의 철학이 고정된 지식 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세계에 대한 것이고, 인간을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존재에 관한 이론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맥락에서 탐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12) 한국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터(2000), p.3

2.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1) 슈타이너의 인지학적(Anthroposophy) 인간관

슈타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의 경험적 인식에 대한 물음이었다. 슈타이너는 세상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 개개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세상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내면으로 침잠 되고 이러한 경험은 정신을 통해 능력으로 변환되므로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힘은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식은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능력이 깨어나도록 하는 영혼의 수련을 강조한다.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변화를 인식함은 곧 인간의 정신적 깨달음으로서 이는 곧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면 이를 슈타이너는 ‘더 높은 세계, 정신적인 세계의 도달’로 표현하고 있다. 즉,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 초감각적인 세계를 파악하는 인식의 틀을 집중, 명상, 도덕적 태도(인내와 끈기)등으로 개발함으로써 포괄적인 세계인식과 현존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관점은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는 동양적 사상과 유사하다.

피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슈타이너는 인간과 우주 속에 자연과학적인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감각을 초월하는 정신세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물질문명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던 1900년 초에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세계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자연과학을 일원화하려고 한 것은 가치 있는 시도였다.

즉, 슈타이너는 보다 높은 정신세계도 마치 육체적인 것들이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 될 수 있듯이 인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초감각적인 인식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식의 세계를 밝히려고 했으며, 이러한 정신과학에 대한 연구는 슈타이너

교육사상의 기초가 된다.

슈타이너가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영혼 연구방법을 발견하고자 한 주된 목적은 인간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지학적 세계 인식을 통하여 인지학적 인간론을 전개하면서 당시의 인간학과는 다른 방법론적 출발점으로부터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가. 통합적 인간관

슈타이너는 현대의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물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질 안에는 정신적인 것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학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물질적인 부분의 특성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신체에 나타난다. 슈타이너는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자세히 관찰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얼굴 생김새나 앉는 자세, 습관적인 행동, 걸음걸이 등은 모두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¹³⁾

슈타이너는 인간 본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초감각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그는 인간을 신체(body) 영혼(soul) 정신(spirit)의 존재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신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신체, 영혼, 정신, 삼원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네가지 구성체로 설명하기도 하며, 7가지, 9가지로 세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나.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체

슈타이너가 말하는 신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같다. 즉 인간을 이루는 물질적 부분을 의미한다.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의 seele, 영어의 soul에 해당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soul은 첫째, 사후에도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둘째,

13) 조연제,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 연구」, 목포대학교육대학원, 2008.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인간의 본질이며, 심오한 사고와 감정에 속해 있다고 간주되는 부분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영혼의 의미는 보통 정신이라고 사용되는 용어와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인간을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삼원적으로 파악하면서 영혼과 정신의 차이를 분명히 밝힌다. 슈타이너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 영역을 매개하는 중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슈타이너는 물질 이외의 부분을 ‘영혼’과 ‘정신’이라고 말하고, 분명하게 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신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감정을 말한다. 우리는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체는 영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은 바깥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자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반응한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정신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슈타이너는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 법칙에 지배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활동의 법칙에 지배된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원성이며, 이것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간은 물질과 정신을 모두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의 ‘geist’, 영어의 ‘spir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첫째, 물질적이 아닌 부분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이 속해 있는 곳이다. 둘째, 인간의 마음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다. 사전적 의미 이외에 신비적, 종교적 혹은 정신적인 체계에서는 정신이 거의 신적(神的)인 어떤 것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영감·영지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정신은 보다 고차원적 세계와 닿아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¹⁴⁾

눈에 보이는 신체는 유전법칙에 따르며 죽으면서 사라진다. 반면, 정신은 불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체를 업고 다시 태어난다. 영혼은 신체와 정신

14)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78

을 매개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영혼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신체는 유전법칙에 지배되며, 영혼은 자기 창조적 운명에 따르고 정신은 불멸하여 끊임없이 지상의 삶을 반복한다.

슈타이너가 인간을 크게 신체 영혼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질체(physical body) 에테르체(etheric body) 아스트랄체(astral body) 영혼 영역의 감각혼(sentient soul) 오성혼(intellectual soul) 의식혼(consciousness soul) 정신영역의 정신의 물질체(spirit-man) 정신의 에테르체(life-spirit) 정신적 자아(spirit-self) 9가지로 이해하고 있다.¹⁵⁾

슈타이너는 신체, 영혼, 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신체를 포함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신체를 볼 수 있듯이 영혼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쁨 고통 등에 감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영역이다. 신체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온전히 내 자신의 세계이다. 또, 정신을 통해서 바깥의 세계는 더욱 고차원적으로 내 안에 드러난다. 우리는 눈을 통해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이때 영혼이 경험하는 기쁨은 내 안에 속한 것이다,

신체를 통해 지각한 세계에 살 수 있으며, 영혼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고, 정신을 통해 앞의 두 세계보다 고차원적인 세계가 내안에 드러나게 된다.¹⁶⁾

다. 네 가지 구성체

슈타이너는 인간을 네 가지 구성체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7세, 14세, 21세 무렵에 일어난다. 이와 같이 출생을 포함한 4번의 계기를 통해서 인간은 네 가지 구성체를 갖게 된다.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가 그것이다.¹⁷⁾

15) 위와 같음, p.82

16) R. Steiner(1997), 『An Autobiography, 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p.19

ㄱ. 신체

인간의 물질체는 눈에 보이는 몸으로 우리가 신체라고 이르는 것을 말한다.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는 현대과학에 의해 많은 것이 발견되고 설명되고 있다. 슈타이너가 초감각적 영역까지 확대해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때, 이것은 감추어진 신비의 물질적 근거가 된다.

물질체는 생명이 없는 광물의 세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물질체는 광물계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의 물질체는 광물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¹⁷⁾

ㄴ. 생명체¹⁹⁾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두 번째 구성체는 생명체이다. 슈타이너가 사용하는 생명체의 의미는 ‘고차원적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 ‘물질체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적 내용물에 분명한 형태와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뜻한다. 생명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체의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고차원적 존재를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생명체에 관해 희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이다.

슈타이너는 생명체를 에테르체 라고 하였다. 에테르체는 유기체로 하여금 하나의 개체로서 자립시키는 생명력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에테르체를 갖기에 에테르체를 생명체(life body)라고도 하며, 물질체의 형태를 보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형성력체(formative forcebody)라고도 한

17) 정윤경(1997), 『예술로서의 교육』 고려대학교 교육사, 철학연구회 편, p.86

18) 위와 같음, p.87

19) 에테르체

에테르체는 그리스어로서 ‘빛남’을 의미한다. 광휘체 또는 생명체라고 한다. 생물의 유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비가시적인 신체, 부분, 동양의 氣에 해당하는 신비학적 용어로 이미 파라켈수스(paracelsus:1493-1541, 르네상스시대 스위스 의사, 화학가, 고대의학, 연금술에 달통하였고, 의화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그는 전 우주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다.)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생물의 식물단계, 동물단계, 인간단계에 따라 에테르체의 존재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R.steiner, 1992(c):13)

다.²⁰⁾

ㄷ. 감성체

인간을 구성하는 세 번째 구성체는 아스트랄체이다. 쾌락, 충동, 열망, 열정 등의 감각. 감정이 전달자이자 감정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감각이나 감정은 감각작용을 포함한다. 식물은 이러한 감각작용은 없고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만 있지만, 동물은 감각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감각작용과 관련 있는 아스트랄체는 동물계와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에테르체가 물질이 아니라 활동적인 힘의 형태라면, 아스트랄체는²¹⁾ 내적으로 움직이며 빛을 발하는 형태이다. 이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인상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내면화 하게 된다.

의식의 내적 생명에 해당하는 아스트랄체를 갖는 것은 동물과 인간뿐이라고 슈타이너는 말한다. 아스트랄체의 활동이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하는 것이며, 이 점이 앞의 두 물질체나 에테르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간은 충동. 본능. 욕망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인간은 사물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의식하며, 자극에 반응하고 쾌, 불쾌 등 다양한 감정에 따라 살고 또 사고하며 살아간다. 특히 아스트랄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충동. 쾌. 불쾌 등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감정이다.

ㄹ. 자아²²⁾

20) R. Steiner(1971), 『An Autobiography.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p.15

21) 아스트랄체

‘별’을 의미하는 아스터의 형용사형, 성기체(星氣體)라고도 하는 신비학의 용어인데, 이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내면생활을 신적(神的)인 영(靈)의 작용과 아스트랄적인 혼(魂)의 작용으로 나누고, 후자가 육체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물질에서 유래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신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로 보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스트랄체는 자아처럼 이상을 추구하고 목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의식의 근저에서 공감과 반감의 작용을 주재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감정(기쁨, 슬픔, 기대, 동정, 질투심)을 일으킨다(r. steiner.1992(c):13)

22) 자아

슈타이너는 인간을 이루는 네 번째 요소를 Ego, self 또는 ‘나’(Ich)라는 말로 나타낸다.

앞의 세 가지 구성체가 각각 광물, 식물, 동물과 특성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자아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인간 고유의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의 존재와 작용은 ‘나’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라고 하는 명칭은 자기 자신을 우주 안에서 여타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해준다. 인간은 ‘나’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여타의 존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의식하게 된다.²³⁾

인간은 내적인 체험과 생각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무엇과도 공유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개체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이며, ‘나’라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혼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아이다. 자아는 영혼의 중심에서 위치하면서 혼이 갖는 여러 가지 경험을 총괄한다.²⁴⁾

자아는 영혼 안에 살고 있다. 자아의 최고의 현현은 의식혼에 속하지만, 빛을 발하는 자아는 영혼 전체를 채우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자아 안에는 정신이 살고 있다. 신체와 영혼이 외피처럼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듯이, 자아는 정신을 둘러싸고 있다.²⁵⁾

네 가지 구성체는 인간의 생애에서 같은 정도로 성장하지 않는다. 슈타이너는 네 구성체를 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발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이때 발달은 연속적인 발달이 아니라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의 탄생이라는 계기를 포함하는 단속적인 의미의 발달이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신체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구성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이루는 이러한 네 가지 구성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23)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24) 조연제,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2008.

25) R. Steiner(1972), 『An Autobiography.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pp.29-31

2) 인지학적 발달 단계론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에 따르면 인간은 7년의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며 유아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구별 가능한 특수한 학습과 소질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다.²⁶⁾ 출생에서 7세까지, 7세부터 14세까지, 14세에서 21세까지 3단계를 구분하고 이 발달 주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의 감정이 동반되어 자신의 의사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립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 출생에서 7세까지(제1단계)는 생명체의 탄생, 7세에서 14세까지는(제2단계)는 감성체의 탄생, 14세에서 21세까지(제3단계)는 자아체의 탄생 기간으로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교육받은 인간은 비로소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자 했다.²⁷⁾

첫 번째 단계에는 오감의 반응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모방이 학습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아이들이 모방할 만한 물리적, 심리적, 도덕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한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규칙과 리듬을 배려한 환경을 제공하여 내적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아이들이 회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계로 이시기는 감정교육을 위하여 예술에 의한 교육을 중요시하며 학교공부의 본질은 모두 감정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²⁸⁾

세 번째 단계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전문교과를 다룰 수 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욕구가 나타나도 추상적 사고 능력이 생기며 자신의 영혼의 힘, 즉 감정과 의지로 환경에 맞선다. 그럼으로써 이 시기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슈타이너는 자유란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서 판단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독특한 인간 발달론을 토대로 하여 ‘자유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길을 3단계 교육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6) 김문자(2003), 『감성교육에 기초한 선과 색 체험 활동의 미술 수업 지도 방안연구』, p.67

27) 김성숙(1997), R.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한국조형학회

28) 한진이(1998),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 보육정보 p.15

3) 인지학적 기질론

교육심리학에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할 때 보통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유전에 의해 물려받은 것과 사람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들만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유전과 환경 이외에 정신세계에서의 경험을 인간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중요한 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와 정신세계에서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주된 수단이 된다. 정신세계에서의 경험이 개개의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기질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슈타이너는 태어나기 이전의 정신세계에서 가져온 것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와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기질(temperament)로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담즙질(choleric temperament), 다혈질(sanguine temperament), 점액질(phlegmatic temperament), 우울질(melancholic temperament)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에도 기질론에 관한 생각이 엿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우주의 혼과 인간의 혼 사이에는 같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를 이루는 물질을 흙, 물, 불, 바람의 네 요소와 인간 혼의 네 가지 상태를 짝지어 생각하였다.

담즙질이라는 용어는 담즙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어원에서 유래한 것이고, 다혈질은 그 어원이 피를 뜻하며, 점액질은 후두 뒤에 있는 점액질과, 우울질은 흑담즙과 관련된다.²⁹⁾

슈타이너는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하기 전에 인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인간의 신체 중 머리는 뇌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사고과정이라는 내적 과정과 관련되어 외부세계와는 일정 거리를 갖는다. 반면 팔다리는 외부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 인간의 의지를 바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 따라서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

29)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147

을 객관적인 것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머리는 탄생 이전의 삶인 정신세계의 증거로 우주를 본떠 형성되고 조직되었다. 한편, 팔다리를 포함한 신체의 대사 기관은 땅의 힘과 관련이 깊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이러한 우주적 힘이 두드러진 부분과 땅의 힘이 두드러진 부분으로 나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두 흐름은 함께 작용한다. 이 때 인간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구성체인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가 혼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혼합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구성체 중 두드러진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질을 결정한다. 네 가지 구성체가 혼합할 때, 자아가 지배적인 담즙질, 아스트랄체가 지배적인 다혈질, 에테르체가 지배적인 점액질, 물질체가 지배적인 우울질로 결정된다.³⁰⁾

가. 담즙질(choleric temperament)

강하고 정열적이며 격노하기 쉽다. 또 행동파이고 실질적이다.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갖고 활동한다. 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반응하며 확신해 차 있다. 또한 보통 모험을 좋아한다.³¹⁾ 우울질이 에너지를 걱정, 근심 등 내면적으로 소모하는데 비해 담즙질은 주로 실제적인 일에 마음을 쏟는다. 타인에게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역경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지구력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지도력을 갖고 있다. 담즙질의 결점은 타인에게 상냥함, 인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광란적으로 열광하는 위험이 있다. 남의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기 일쑤이다. 남에게 불평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역경에도 당황하지 않는 지구력과 남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자기 나름의 정의감을 남에게도 강요하여 횡포해진다. 공격이나 복수를 기도하는 일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담즙질적 역동성이 있다. 담즙질의 사람은 대체로 작고 풍채가 있는 체격과, 넓고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머리가 목으로 들어가는 짧은 목을 가지고 있다.

30)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31) 교야스 미치코(2003),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감성교육』, pp.89-90

나. 점액질(phlegmatic temperament)

보통 화를 잘 내지 않고 침착한 편이다. 내적 조화와 안정감이 강하며,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수동적이고 다소 게으르다. 이들은 보통 화를 낼만한 일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기분에 의해 좌우됨이 적고, 침착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외계에 대하여 조화적이기는 하지만 냉정, 무관심하여 자기 속의 관심에만 계속 잠겨있다. 격하는 일이 없고 침착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일이 적다. 위급할 때에는 냉정하게 반응하고 유머나 풍자를 말할 여유도 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가벼운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까다롭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남에게 우호적이기는 해도 특별히 친절하게 뒤를 봐주는 것은 아니다. 또 동작이 느리고 게으름뱅이가 되기 쉽다. 타인의 희로애락에 별로 동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방관적으로 냉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무감동하고 심술궂은 인간으로 간주될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점액질적 명상에 젖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적으로는 뚱뚱하고, 앞으로 구부러지고, 어깨가 튀어나온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기질이 많다.

다. 우울질(melancholic temperament)

감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극적인 일에 동화되는 것을 종종 해방(Befreiung)으로서 경험한다. 즉 우울질은 기분이 자기 내면으로 깊게 움적이며 여러 가지 인상을 자기에게 관련시켜서 생각한다.

낙천적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쓰는 성질이다. 대부분 조용하고 진지하며, 깊이 생각하는 편이다. 감수성과 내적 집착이 크므로 외부에 대하여 한 발짝의 행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숙고를 요한다. 그리고 완전주의에 치우치기 쉬워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사소한 일로 시간을 소비해 버리고 즐거움이나 여유를 잃거나 주위까지 어두운 기분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일도 있다. 예상되는 곤란이나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의지는 강하고 이상이나 진실을 철저히 따르려 한다. 이들은 몸이 말랐으며, 걸음걸이가 일정하고 허리가 꼳꼳하다.

라. 다혈질(sanguine temperament)

대부분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기분이 가볍고 잘 변한다. 언제나 현재의 인상에 가장 크게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그때그때의 인상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천진난만함과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 생기 있는 말, 개방적인 태도가 주위까지도 즐겁게 해주며 편견이 없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다혈질의 단점은 내부에서 충분히 반성하거나 실행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침착성이 없고 지속력이 없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에 대하여 변덕이 많거나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호기심이 왕성하여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지만 어느 것이나 완성하는 것은 서투르다. 대부분 건강한 어린이는 다혈질적 기질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지녔다.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는데 모든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다혈질적 기질이, 청소년에게는 약간의 담즙질적 역동성이, 성인에게는 심각한 우울질의 흔적이 보이고 노년층에게는 점액질적 명상에 젖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슈타이너는 아이들의 기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에 ‘아이들의 주된 기질은 무엇인가?’를 묻고 그 주된 기질에게 상반된 기질을 권함으로써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사와 부모는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담즙질의 아이들끼리 앉히면 아이들이 격하기 쉬운 기질을 상쇄할 것이다. 다혈질의 아이들도 서로 끊임없이 변하는 관심과 쾌활함이 상대를 서로 지치게 할 것이다. 점액질의 무기력하기 쉬운 기질의 아이들끼리 앉는 경우는 서로의 무기력함이 무기력함을 일깨우게 된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임무이다. 각각의 기질이 어떻게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에 나타나는지, 서로 다른 아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지 관찰하는 것이 아동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이고 민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질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고, 다만 어느 한 기질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질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근본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한다. 어떤 기질이든 성급하게 그 단점을 운운하기 전에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의 생명적 안정감과 연결된다.³²⁾

따라서 교육에서 이러한 기질론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 기질론은 현재 아이들이 드러내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슈타이너처럼 태어나기 이전 정신세계에서의 경험까지 고려한다면, 유전과 환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개체성(individuality)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2) 권준범(2001),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연구』, 한국미술 교과교육학회

4) 슈타이너의 인간과 교육에 대한 접근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 이해하고 ‘교육예술(erziehungskuns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³³⁾ 슈타이너는 기존의 지식의 전달과 기술의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죽은 교육’이라고 보고 진정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특성과 정신을 소중히 성장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 선택한 방식은 인간의 내부에서 매순간 새롭게 현현되는 신적, 영적인 요소를 예술적 이미지가 넘치는 수업을 통해서 육성시켜 가는 일이었다.

슈타이너가 의미하는 ‘교육 예술’이란 지극히 확실하고 슈타이너의 세계관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핵심사상이며, 슈타이너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항상 새롭게 시도하며 이룩해 나갔다.³⁴⁾

슈타이너는 대학시절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당시의 가정교사 일을 돌아보면서 그는, “나는 당시의 교육실천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인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실천을 통해 나는 생리학 and 심리학에 대해 연구 할 수 있었고, 교육과 수업이 진정한 인간본성에 기초한 예술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³⁵⁾고 말한다.

또한 슈타이너는 정신에 대한 지식이 내적 경험이 될 때, 전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영혼의 힘이 자극되고 이러한 내면의 정신적 경험이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깨어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인지학은 정신에 대한 지식, 인식 차원에 예술적인 요소를 첨가하게 된다. 예술 활동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정신에 대한 경험 속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요소가 인지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에게 결국 예술이란,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신에 대한 회화적인 경험에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인간의 진화과정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유일하게 예술만이 이 경험을 붙들고 길을 밝혀야 한

33) 임영희, 이야기, 『교육예술론』, pp.51-52

34) 요하네스 키르쉬(2004), 『발도르프 교육학: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학 입문』, p.39

35)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97

다고 슈타이너는 생각한 것이다.³⁶⁾

슈타이너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닌 기본적인 잘못은 오직 머리로만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머리 이외의 부분을 그저 질질 끌면서 살아 갈 뿐입니다.”³⁷⁾라고 당시 시대전반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슈타이너는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 즉,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엄정성과 함께 예술가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연의 창조적인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법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과학적인 지성에 예술적 감각과 함께 영혼의 내적 동력에 생기를 돋게 하는 감정을 불어넣음으로써 초감각적인 인식의 첫 단계로 학생들을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³⁸⁾

이와 같이 슈타이너는 ‘인간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교육’과 ‘예술로서의 교육’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적 행위가 수업을 뛰어넘어 영혼의 동반자로서 항상 아동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 슈타이너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정서교육을 한다는 간판을 내걸기 위함이나 우아하고 부드러운 학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이의 영혼은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없이는 성장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다.³⁹⁾

가. 신체를 통한 정신의 발현

슈타이너는 정신적 영역은 신비적 감정이 아닌, 명확한 개념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념의 세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의식세계에서의 개념과 관념의 체험과정은 자신을 정신적 실체로 인도해 주었다.’⁴⁰⁾

36) R. Steiner(1971), 『An Autobiography.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p.383

37) R. Steiner(1971), 『An Autobiography.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p.3

38) 강승균(1995),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교육론』, 고려대학교 교육사 연구회, p.32

39) 교야스 미치코(1996)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임영희, 이아야 옮김, p.191

40) 김선영(2004),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과정연구』, p.34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슈타이너 학교는 아동들을 육체, 영혼, 정신이 함께 하는 우주적 존재로 파악하며, 아이들은 교육을 해 감각의 세계 저편에 존재하는 우주를 느끼고 이것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세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기존의 교육 형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이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는 교육적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의 필요성, 즉 교육예술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소우주로서의 인간, 우주창조의 근원을 한 사람의 인간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존엄을 다시 한번 되찾아주기 위한 교육이 슈타이너 교육이론의 원리이며 핵심인 것이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미(美)는 인지 가능한 감각세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세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예술은 정신세계가 감각세계로 변화된 영역 속에서 그 모습을 갖게 된다.⁴¹⁾ “예술가를 이끄는 힘은 단순히 주관적인 충동만이 아니다. 예술가는 물질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 정신이 드러나 있는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부여된 관념이 아니라, 정신적 형태가 부여된 감각지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정신세계가 감각지각 가능한 (sense-perceptible) 세계로 변형된 영역이다.”⁴²⁾

이와 같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예술의 특성은 ‘정신적인 것이 감각지각 가능한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나. 자기 주도적 감성 체험

예술작품에 있어서 감각으로 지각 할 수 있는 측면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술가가 추구하는 길은 살아 움직이는 정신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물질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슈타이너는 모든 교육은 예술적 창조성과 감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지만 예술적인 감정으로 볼 때 자연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

41) 전일균(2004), 『노작교육론』, p.128

42) R. Steiner(1877), p.128, 재인용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교육 환경을 통해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난.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능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제작하는 아이들은 영혼을 일깨우게 되며, 깨어난 영혼을 통해서 스스로 예술적 활동을 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⁴³⁾

다. 살아있는 경험의 총체 - 홀리스틱 교육

슈타이너가 교육을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부분에서도 전체를 느낄 수 있다는 통합성 때문이다. 환원과학의 특성이 부분을 전체로 환원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다. 슈타이너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통합성을 볼 수 있다. 교육이 통합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통합된 인간에 대한 교육, 즉 전인교육으로 연결된다.⁴⁴⁾ 교육의 이상으로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머리, 가슴, 손의 인간 교육을 말한 페스탈로찌도 전인교육을 이야기했고,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발한 진보주의 교육 운동 역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쳐야 한다’를 표어를 내세웠다.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인으로서의 인간교육을 강조한다.⁴⁵⁾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 혹은 지, 정, 의 영역의 균형과 조화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이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도 가진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해 간다고 얘기한다.

교육이 예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은 발도르프 학교 설립의 기초 배경을 이룬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발도르프학교의 주요 특징과 슈타이너 철학에 기반에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43) 강승균(1995), 『Rudolf steiner의 인간학과 교육론』, 우석대학교 논문집, p.37

44)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45) 김문자(2003), 『감성교육에 기초한 선과 색체험 활동의 미술 수업지도 방안연구』

3. 슈타이너의 발도르프학교 교육과정 적용 및 분석

1) ‘독일’의 발도르프(Waldorf)학교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시(市)에 설립되었다.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당시 하나의 새로운 사회구성의 실현을 위하여 이 학교를 창설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12학년을 유급 없이 공부를 하게 된다. 모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적인 소질과 재능을 중심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1학년부터 일반적인 과목과 함께 다양한 예술적인 수업들이 시작된다.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또한 도덕성, 종교성 형성이다. 종교수업은 각기 종파의 또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수공수업은 (6학년부터) 자신 의지활동의 능숙화와 실제적인 것에 대한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간 삶의 실제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는 자유로운 판단능력, 자신 삶의 이상과 시대의 사회적 삶을 위한 자각심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도르프 수업내용과 수업형태는 아이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안에 있는 인간발달의 단계에 그 중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학교시작부터 인간내면의 자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 발도르프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관례적인 성적평가체계를 없앴 것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성적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특성묘사(서술)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이의 성과, 성과에 대한 진전상황, 개별 과목들에 대한 노력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독일의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과정(10학년), 전문대학입학자격(12학년) 또는 일반대학 입학자격을 (13학년) 가질 수 있는 과정들을 졸업 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주지방정부의 교육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자립 학교로서의 발도르프 학교는 외부의 공립학교들의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방식을, 자유로운 제도를 통하여 대신하고 있다. 즉, 발도르프는 교육적인

자율책임 안에서 통제된다. 발도르프 학교 운영은 매주에 있는 동료간의 교사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회의는 교사전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사는 학교의 구성과 교육의 모든 문제들을 자문하며 이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인지학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과 그 삶의 법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의 발달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공동체의 기본틀을 형성한다.

가. 발도르프학교의 운영 방침

예술로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기존의 다른 학교와는 다른 몇 가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한 명의 같은 교사가 같은 학급을 맡아 8년을 계속 가르친다. 이것은 슈타이너가 아동의 성장 단위를 8년으로 본 데서 나온 제도이다. 아동의 성장은 학교의 학년별로 단락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년 담임제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 학부모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얻을 수 있고 교사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들이 변화하고 발달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된다.⁴⁶⁾

8년 동안 한 담임 교사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7세 이전의 아동들은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정감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7세가 넘으면서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만들어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안정되게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 하게 된다. 8년 담임제가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몇 과목-종교, 공예, 오이리트미, 체조, 정원 가꾸기, 외국어-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 대해 교사는 8년 동안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아이들의 학습속도와 관심에 따라 수업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교사는 아이들이 9학년이 되어 전문 교사에게 수업을 받기 전까지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초를 풍성하게 가꾸어주

46)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⁴⁷⁾ 8년 동안 동일한 교사가 담임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전문적인 과목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교사가 8년간 지도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하는데 유리하며 학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과간의 전이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교사는 하나의 세계로 인식되며 교사라는 인격의 모델을 통하여 세계를 내면화 하게 된다.⁴⁸⁾

둘째,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리듬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급하게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해 내리고 교육하지 않으며, 한쪽에 치우친 내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할 때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이라는 시간의 리듬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 성질이 다른 교과목, 예컨대, 언어, 음악, 동작이 갖는 리듬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또한, 아동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리듬을 고려하여 교육한다.⁴⁹⁾

하루의 시간을 조직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의 활동의 조절과 하나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하며, 시간단위의 구체적인 활동에서는 예술적인 성질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연중 계획에 있어서는 계절별 절기를 중시하여 부활절, 성 요한 축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적 전통에 따른 절기들이 강조되는데 종교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⁵⁰⁾

셋째, 교육과정의 큰 틀은 슈타이너 사상에 입각한 인간의 본질과 기질, 발달단계에 맞게 구성되나 교육과정의 실행은 학교가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에 따라 교사 자율에 맡긴다. 즉, 하드웨어는 정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날마다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8년의 담임과정은 부

47) 한주미(2002),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p.170

48) 박의수(1995), 『발도르프 교육과정과 운영 방법』

49) Easton, Freda(1995), 『The Waldorf Impulse in Education: Schools as Communities that Educate the Whole Child by Integrating Artistic & Academic Work』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50) 정윤경(1997), 『예술로서의 교육』 고려대학교 교육사, 철학연구회 편,

모를 정하여 태어날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상의 배려로 교사와 학생도 8년 간 담임을 하게 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교육과정 실행상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교과서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발도르프학교 교사는 큰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자유로운 교육방법과 교재선택 및 시간조정의 자율을 가진다는 점이다. 대신 교사 자신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계화 된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학습노트를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발도르프학교는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성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고, 과정, 의지의 면부터 충분히 고려한 뒤에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9세 즈음은 어린이의 자아의식이 강해져 고정되고 다음 12세를 넘을 즈음에는 외계에 움직이는 힘(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나 자연과학 힘)을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9세경의 교육과정은 옛날 이야기 전설, 성서 이야기나 고대 신화에 의한 설화 등에 바탕을 두어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쓰기를 먼저 천천히 가르친 후 읽기, 사칙계산, 외국어도 가르친다. 11세 정도에 들어가면 어린이가 자기와 외계를 구별하는 시기에 맞춰 동물학, 식물학이 들어가고, 포르멘에서 발전한 기하학과 문법, 지리도 이 시기에 도입된다. 12세 이후에는 역사와 광물학, 물리학, 화학 등 외계를 대상으로 한 과목과 직접적인 관찰, 객관적인 묘사와 사고, 인체생리학도 이 시기에 처음 가르쳐지고 더불어 이들의 학문적인 과목과 같이 예술이나 수공, 오이리트미도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친다. 14세 이후 상급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지적 학문적인 수업이 점점 늘어나지만 손과 마음을 단련한 예술적, 실천적인 과목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슈타이너 교육과정은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각 과목이 몇 번씩 반복되어지며,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따라 감동을 동반한 보다 깊은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습득하도록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처해진 학교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나. 발도르프(Waldorf) 학교의 교육과정

ㄱ. 포르멘(Formen)

발도르프학교에서는 포르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포르멘이란 독일어의 Formenzeichen(선 그림-모양, 꼴, 형태 그리기), 영어의 Form Drawing 의 의미로, 흔히 formen으로 약칭한다. 슈타이너가 창안한 이것은 1919년 독일 슈튜트가르트에 최초의 자유 발도르프학교를 창설할 이후, 그가 오이리트미와 함께 시작했던 새로운 교육법중의 하나이다.⁵¹⁾

포르멘의 예술적 요소인 선은 어떤 형태의 윤곽을 경계 짓는 선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각자가 그려내는 선의 운동에 따라, 자신의 내면의 힘을 선에 실어 몸도 마음도 그 선과 함께 움직이면서, 바로 그 움직임으로부터 형태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형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선은 움직임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다.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 운동감각에 의한 형의 교육을 중시하여, 이를 포르멘 학습을 통한 인간교육으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어린이의 미술교육을 단순히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야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직선, 곡선 등의 다양한 선의 움직임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존재의 전체로서 선과 형태를 체험하기를 시도한다. 그는 운동의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형을 만들어 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운동감각과 균형 감각이 포르멘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 우주의 리듬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선의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깊이 체험시키고자 하였다. 반복하는 포르멘 학습을 통해 어린이가 자신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종의 기쁨의 감정을 생성해 내고, 그 불려 일으켜진 신선한 이미지의 힘에 의해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했

51) 김성숙(2002),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인간학』, 루돌프 슈타이너, 김성숙 옮김

다.

우리는 ‘형태’라는 것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들은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까지는 알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 활발히 만들어진 활동에서 떨어져 나온 결과물이며 무엇이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경과인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 과제는 어린이로 하여금 왕성한 내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형태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만들어진 것(Werdende)’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Gestaltende)’의 흔적을 쫓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슈타이너는 형태그리기라는 새로운 교과를 생각해 냈다.⁵²⁾

따라서 대상의 특성을 발견하고 지각하는 능력, 자신의 움직임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감정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능력 등이 포르멘 수업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또, 선으로 자신의 기질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포르멘 수업의 자료는 교사에게는 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며 아동에게는 자아를 깨닫는 기회가 된다.

◆ ‘포르멘’ 수업의 실제

발도르프학교에서는 1학년 입학 첫 날부터 직선, 둥근 선, 나선, 파위의 기본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5학년까지는 점점 복잡한 선의 짜임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그리고, 아름다운 색으로 모양을 칠한다. 주기집중수업에서 교사의 이야기나 시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리기도 한다. 따라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painting)에 더 가깝게 보인다. 이것이 6학년부터는 기하학을 배우는데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⁵³⁾

52) 김용근(1998), 『이 땅에 발도르프 교육이 가능한가?』, 처음처럼 5호

53)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p.167

[그림1]



[그림2]



[그림3]



12학년까지 있는 슈타이너 학교의 포르멘은, 1학년부터 5학년생, 주로 6~12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 년2~3회, 2,3주간에 걸쳐서 주기집중수업으로 연습하거나 교사의 재량에 의해 년 중 내내 행하기도 한다.

포르멘은 학년에 따라 단순한 직선이나 곡선에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직선과 곡선으로 발전해 간다. 단순한 선의 연습이후에는 날카롭게 또는 둥글게 각진 선의 연습, 반원, 삼각형, 사각형, 별모양, 원, 타원 등의 형태들을 자연의 사물에서 보고, 느끼는 연습을 한다. 그런 다음 대칭 연습을 하는데, 대칭 연습은 슈타이너에 의하면 생각하면서 보고, 보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 된다. 대칭연습은 주변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사물을 찾아보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좌우와 상하가 동시에 대칭인 형을 연습하고 생활 주변 자연물에서 이러한 형을 찾아보도록 한다. 특히 대칭형, 방형, 소용돌이형, 뿔뿔형 등의 선묘로 바뀌어 갈 때 마다 선묘의 변화와 함께 어린이들도 조금씩 성장해간다. 이렇게 해서, 선이 형으로 발전하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는 동안에, 어린이들은 선과 더불어 자신도 움직이면서, 순

순한 기쁨의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⁵⁴⁾

따라서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자’ 혹은 ‘컴파스’에 의존하지 않고 맨손으로 그린다. 그래서 잘 그린다든지, 못 그린다든지 하는 것이 없으며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렇게 칠해야만 된다 따위의 똑같은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⁵⁵⁾

발도르프학교에서의 문자 수업은 회화적인 수업에서부터 만들어 진다. 문자수업의 진행에 대해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선묘의 연습을 연필과 크레용으로 잠시 동안 해왔다고 합시다. 바른 기초를 바탕으로 세운 수업을 하는 데에는 쓰기를 배우기 전에 잠시 동안 선묘를 연습해서 쓰는 일로 이행하고, 쓰는 일에서 썩어진 것을 읽는 일로, 인쇄된 것을 읽는 일로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⁵⁶⁾ 그러므로 그는 쓰는 법을 가르칠 때에는 형, 특히 알파벳 글자형의 예술적인 ‘포르멘 선묘’에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림으로 문자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문자형태의 창조원리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우리식의 한 글자 한 글자 암기하듯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통해 우선 손으로 문자를 읽으면서 접하게 하고 상상하게 한다. 그러는 동안, 상상력을 인간이 최초로 문자를 필요로 하여 창조하던 당시까지 확대시켜 어린이들 스스로가 즐겁게 문자를 발견해가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포르멘은 단지 미술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독자적으로 위치하지만은 않는다. 여러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모든 수업에서 행해진다.

ㄴ. 에포크(Epoch) 수업

발도르프학교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에포크(Epoch)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포크는 똑같은 교사에 의해 같은 과목을 매일 2~3시간씩 3~4주간 집중적으

54) 김성숙(1997), 『R.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한국조형학회, p.7

55) 고야스 미치코(1996),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임영희, 이야기 옮김, p.299

56) Steiner, Rudolf(1995), 『The Kingdom of Childhood. trans. Fox Helen. NewYork: Anthroposophic Press』

로 배우는 것을 말한다. 발도로프학교의 교육은 집중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기 위해 무의식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본다.⁵⁷⁾

발도로프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대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자신의 그림이나 글로서 노트에 적는데 이것이 바로 ‘에포크 노트’이다. 학생들이 공부한 결과는 에포크 노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졸업 때가 되면 학생 각자의 에포크 노트의 양이 늘어난다. 물리, 지리, 기하학 등의 에포크 노트에는 각 과목의 특색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과 글로 나타난다. 생활환경과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관심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에포크 노트마다 아이들의 개성이 담겨 있게 된다.⁵⁸⁾ 발도로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포크(Epoch) 수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실제 발도로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표를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표1>은 발도로프학교 7학년의 시간표이다.⁵⁹⁾

<표-1> 발도로프학교의 7학년 시간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08:00-09:50	에포크(Epoch)수업					
09:50-10:10						
10:10-10:55	영어	프랑스어	영어	공작	체육	영어
10:55-11:00						
11:00-11:45	오이리트미	복습	음악	공작	체육	음악
11:45-11:50						
11:50-12:35	프랑스어	종교	프랑스어	종교	복습	
12:35-12:40						
12:40-13:25	수예		오이리트미			
			오케스트라 (과외)			

57) 김윤경(2001), 『발도로프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박지영(1999),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대한연구 :루돌프 슈타이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9) 교야스 미치코(2003),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임영희 역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계속해서 수업하는 독특한 시간표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공통적이다. 그것은 최초에 큰 선반을 하나 놓고 그 밑에 많은 서랍을 배치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서랍 부분은 보통 학교처럼 5분단위의 수업으로 채워져 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조그만 서랍 속에 들어가는 과목을 ‘전문수업’(Fachunterricht)이라고 부르고 최초의 큰 선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수업’(Hauptunterricht)이라고 부른다.⁶⁰⁾

ㄷ. 오이리트미(eurythmy)⁶¹⁾

오이리트미는 그리스어로 ‘좋은, 조화로운’이라는 뜻의 eu와 ‘리듬’이란 뜻의 rhythm이 결합한, ‘좋고 조화로운 리듬’이라는 뜻을 지닌 독일어이다. 슈타이너는 오이리트미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소리를 보여주는 움직임의 예술이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말’이자 ‘볼 수 있는 노래’라고 표현한다. 오이리트미를 하는 목적은 인간의 초감각적인 실체에 속하는 정신, 영혼을 육체 안에 온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슈타이너는 우주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 육체와 조화롭게 결합하여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이른바 정신의 육화과정과 오이리트미 과정을 동일하게 여겼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독일에서는 별개의 독특한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 했다. 슈타이너가 시작 할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음악이나 말을 특정 몸 동작으로 표현해내던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무용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하나의 예술활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오이리트미는 음악의 음계(도레미파솔라시도)와 지시기호(예, #, b) 말의 자음과 모음 등을 특정 제스처나 몸 동작으로 만들어 해당 음이나 말이 나올 때 그것을 무용형식으로 표현하는 장르다. 이것이 동작이 정해진 에어로빅이나 무술활동 등과 구

60) 고야스 미치코(2003),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임영희 역

61) '오이리트미(Eurythmie)',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이 말은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동작' '아름다운 리듬'을 뜻하는 말로,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독일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 1912년 선보인 것으로, 언어와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동작예술이다, 출처:오마이뉴스

별되는 점은 연희자가 음과 언어의 원초적인 의미나 가치를 고민하여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색의 배합을 논한 괴테의 ‘색채론’에 기초해 무대와 의상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무용인과 교육학자들이 이 장르를 국내에 적극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독일의 세계적인 오이리트미 공연단체가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았다.

오이리트미는 실천되는 분야에 따라 예술 오이리트미, 교육 오이리트미, 치유 오이리트미가 있다. 교육 오이리트미는 교육에서 오이리트미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성취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오이리트미라는 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이리트미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강조한다. 치유 오이리트미 혹은 오이리트미 치료는 예술 오이리트미와 교육오이리트미가 상당히 발전된 후 마지막으로 탄생한 영역이다. 오이리트미는 말의 톤에 따라 움직이는 ‘언어 오이리트미’(speech eurythmy)와 음악의 톤에 따라 움직이는 ‘음악 오이리트미’(tone eurythmy)가 있다.⁶²⁾

오이리트미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리를 느끼는 인간의 내적인 경험과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움직임을 통일하는 데 있다.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학의 목적이 내적인 삶의 힘이 신체의 움직임에 파고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이리트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의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4]



62) <http://www.gforest.or.kr/>, 푸른숲학교 자료실

르. 습식 수채화

발도르프학교에서의 수채화수업은 슈타이너의 색채론⁶³⁾에 근거한 색채체험이다. 슈타이너의 색채론은 피테의 색채학⁶⁴⁾을 기초로 연구하여 색의 속성을 물리적 관점이 아닌 정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색을 ‘형상의 색’과 ‘빛의 색’으로 구분한다. 형상의 색은 녹색, 피부색, 흰색, 검정색으로 일반적인 색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의 녹색은 ‘생명의 죽은 형상을 표현한 색’으로 살아있는 식물세계와 관련지어 있는 색이다.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은 식물 안에 있는 죽은 광물질의 모습일 뿐이므로 식물의 생명을 가리고 있는 녹색은 생명의 죽음을 담고 있는 색으로 설명된다. 피부색은 영혼의 살아있는 형상을 표현한 색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보여주는 피부색은 소극적이 되면 녹색, 적극적이 되면 빨강색이 된다고 한다.

흰색은 빛의 색, 정신의 영혼적인 형상을 표현한 색으로 인간의 정신에 빛을 주는 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색으로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색이다. 검정색은 죽음의 정신적인 형상을 표현한 색으로 나무가 죽어 연료가 된 것에 비유되고 있다. 이상 네 가지 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생명, 영혼, 정신, 죽음이란 단어들이 서로 순환적으로 쓰여 짐을 알 수 있다. 즉, 슈타이너는 검정, 녹색, 피부색, 흰색의 본질적인 특성을 생명체의 죽음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으로, 영혼에서 정신으로의 순환으로 보았다.

또한 빛의 색은 일반적으로 녹색, 파랑, 빨강을 제시하고 있다. 노란색의 특징은 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외부로 확산되며 구심점에서 멀어질수록 빛의 힘이 약해진다고 본다. 노란색의 특성을 슈타이너는 빛을 밖으로 방출하

63) 슈타이너의 색채론은 “색채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슈타이너의 강연을 정리한 [색채의 본질]-루돌프 슈타이너, (1997), 색채의 본질, 양억관, 타카하시 이와오, 서울:물병자리-이라는 책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64) 색채를 뉴턴과 같이 양적으로가 아니고 질적으로, 즉 감각체험에 기초하여 고찰한 피테(1749-1832)는 파랑과 노랑이라는 두 가지 근원색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색채세계 속에서 물질계와 정신계의 관계를 간파해내려 하였다.

는 색이라고 묘사한다. 파랑색은 노란색과 정 반대의 특성을 지닌다. 구심점에서 먼 곳일수록 밀도가 높고 구심점을 향할수록 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안으로 빛을 모으는 색이라고 한다. 빨강색은 노란색과 파랑색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 색으로 먼 전체에 균등한 빛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노란색은 인간을 흥분하도록 하면 살아 움직이는 영혼으로 가득 차게 하고, 파랑색은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하도록 하여 내면을 충만하도록 하면, 빨강색은 두 가지 특성의 균형을 유지하여 살아있도록 한다.

슈타이너는 색의 본질을 통해서 아동의 내면을 자극하고 세상을 향해 자기를 열어 직접 그 색깔의 본질로 빠져들게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색에 대한 이론에 기초한 수채화 수업은 아동에게 신체, 영혼, 정신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가능한 한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를 색채에 친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미리 색이 칠해진 종이 위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것이 단지 하얀 종이에 색을 칠하는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색채를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 가지게 될 듯한 감정체험을 어린이 속에서 불러일으키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색채의 생생한 내적인 작용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느끼게 하는 일은 정말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소묘가 어딘가 진실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진실한 것은 색채의 감각입니다. 색채로 그릴 때는 ‘우리는 죽은 것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갈리려고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⁶⁵⁾

슈타이너가 한 말을 보면 슈타이너는 사실적인 외형묘사 보다는 색채에의 체험을 중시함으로써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의 체험을 통한 형태와의 만남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습식 수채화 수업의 실제

발도르프학교에서 수채화 그리기에 관한 교과는 따로 없고 교과 교육과 연계해서 주마다 항상 그 주의 같은 날에 실시한다. 이런 종류의 반복되는 리

65) Steiner, Rudolf(1995), 『The Kingdom of Childhood. trans. Fox Helen. NewYork: Anthroposophic Press』, 2005, 재번역, pp.62-63

들은 몇 년 동안 계속되고 그것은 아이들의 의지를 형성시켜 주며, 활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의 리듬 역시 수업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집중적으로 만든다. 즉, 물과 물감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 차분하게 행동하는 일, 정리 정돈을 잘 하는 일 등의 지도를 통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며 그리는 날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주된 수업은 항상 노래나 아침 시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림도구를 나눠주고 1학년에서 각각 책상 위에 화판, 스펀지, 물을 놓고 준비 한다. 이러한 수채화를 5학년말까지 젖은 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 종이는 반듯이 부드럽고 주름이 없어야 한다. 종이는 따로 고정하지 않고 물로 잘 접착시킨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나눠 가진 도화지에 남은 물기는 스펀지로 가볍게 제거해서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터 조심스럽게 밖으로 밀어낸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종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의한다.

다음은 붓 넓이가 약 2cm 정도 되는 평붓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팔레트에 노랑색과 파랑색 물감을 각각 짜준다. 이후 자신의 손등 위에 물이나 물감이 묻지 않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며 붓의 움직임을 촉각적으로 느껴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어떻게 붓을 움직여야 하는지 미리 알게 한다.

수채화 수업에서는 붓의 사용에 대한 세심한 지도로 올바른 색 체험을 하도록 안내한다. 물을 적게 묻혀서 붓이 갈라지는 경우 물감과 물을 조금씩 더 찍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붓에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물통의 가장자리에 붓끝을 데어서 물을 빼도록 하는 기초 훈련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색칠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젖은 도화지 위에 한 가지 색을 탐색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두 가지 색의 번짐과 혼합 등을 체험하도록 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아이들은 시와 짧은 전래동화를 듣기 위해 모인다. 그때 교사는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보통 1-2학년 아이들은 매우 빨리 그림을 마친다. 완성된 그림은 교사가 그림틀에 말린 후 교사는 다음날 토론을 위해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는다.

수채화 수업이 끝날 무렵 그림재료는 책상위에 올려두고 몇 명의 아이들은 뒷정리를 하도록 한다. 물감통과 물통을 함께 씻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물감 통이 서로 어울려 섞이고 때로는 수채화를 하는 동안 그들이 한 경험보다 더 아름다운 색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모든 색이 섞이면 회색으로 변한다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노랑과 파랑색을 사용한 수채화 수업을 소개하면, 커다란 도화지를 벽에 붙이고 모든 아동들에게 노란색 면을 나란히 그리도록 하고 노란색 옆에 파랑색 면을 그리게 한 후 노란색과 파랑색을 섞어 만든 녹색으로 노란색 옆에 다시 그린다. 노랑, 파랑, 녹색의 면으로 가득 찬 작품을 조용히 감상하도록 한다. 아동들은 노랑과 파랑의 나란히 있는 두면이 노랑과 녹색의 두 면보다 선명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더 아름답다고 한다. 노랑 면에서 강한 노랑, 흐린 노랑, 선명한 노랑 등을 찾아내듯이 파랑과 녹색 면에서도 다양한 색의 특성을 발견해 낸다. 다음은 각자 자신의 도화지에 노란면과 파랑색 면을 나란히 그리도록 한다. 이때 면 안에 다른 색 면을 그려 넣지 않도록 지도한다. 면의 모양은 자신이 정하도록 한다. 각자의 작품을 잘 말린 뒤 다음날 벽에 모두 붙이고 보도록 한다. 단 하나의 노란색 면이 있고, 강렬한 노란색의 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노랑과 파랑의 면이 나오는 사실에 대해 아동들도 감탄하며 노란색이 파랑색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여 집을 체험하게 된다. 다음 수업에서는 ‘빨강과 파랑’, ‘녹색과 노랑’등을 같은 방법으로 체험하도록 한다.⁶⁶⁾

위와 같이 ‘노랑과 파랑’의 색과 ‘노랑과 녹색’의 비교는 어린이들의 혼의 깊은 곳에 남는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번이라도 이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자신도 이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이는 이러한 일을 대충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이다. 단순한 예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어린이는 점차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그것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구별하는 일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⁶⁷⁾

두 가지 색의 혼합과 조화에서 세 가지 색의 혼합과 조화로 이어지는 수채화 수업은 생기 있고 조화로운 색들의 음향, 즉 색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체

66) Juenemann Weitmann(1993), Der kuenstlerische Unterricht in Waldorfschule Malen und Zeichnen, 4. Aufl. stuttgart, pp.27-40

67) Steiner, Rudolf(2005), 『교육예술 수업방법론과 교수법』, 김성숙 역, p.88

힘하도록 하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색의 음향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색 체험을 기초로 색으로 형상을 그리도록 하는데 사물의 외형을 선으로 그리고 형의 내부에 색을 칠하는 방식이 아니라 색의 면과 선으로부터 형상이 나오도록 한다.

이러한 색들이 들려주는 음색에 대한 체험은 7-8세 학생에게 감정체의 성숙을 위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색 경험은 색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느끼고, 색이 원래 지닌 성질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에 기여한다.⁶⁸⁾

[그림5]



[그림6]



[그림7]



68) 조연제(2007),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8

2) 한국의 대안학교 - 과천 자유학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인가형과 비인가형이다. 인가형은 교육 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로, 전일제 정규 대안학교 가운데에는 특성화학교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 21곳, 중학교 8곳 등 29곳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지정돼 있다. 인가형과 달리 비인가형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약 15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가를 받은 특성화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와 견주어 학비가 싼 편이지만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이보다 학비가 더 드는 편이다. 학비는 학교별로 다르며 입학할 때 기부금과 예탁금을 별도로 내는 학교도 있다. 예탁금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⁶⁹⁾

인가를 받은 특성화 학교는 제천 간디학교를 비롯해 영산 성지고, 경주 화랑고, 분당 이우학교 등이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 21개교와 중학교 7개교 등 총 28개 학교가 있다. 대안학교로 성공한 이우학교(교장 정광필)는 비교적 수도권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빼고 나머지 교과과정은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과천 자유학교, 의정부의 꿈틀 학교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 칠보산 자유학교, 강화 마리학교,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학교 등이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 학교 진학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⁷⁰⁾

대안학교는 다양성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철학과 교육방법 등이 다 다르다. 그 중 과천 자유학교는 비인가형 대안학교로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영성과 인성을 중시하며 노작교육이나 생태학습을 중심 교과로 한다. 자기 주도학습의 원리와 네트워크의 태도를 중시한다. 여기에 도시를 학습자원으로 삼아 인턴십 학습을 비롯해 지역사회봉사활동이나 문화작업 등을 주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69) 김청연(2010), 한겨레 신문 사회면 기사

70) 김재홍(2007), 서울시 대안교육 센터(www.activelearning.or.kr)

가. 과천 자유학교 교육의 목표와 성격

과천자유학교는 교과과정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다. 발도르프교육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타고난다고 보며,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개별성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별성은 인간 누구나 자신의 내부로부터 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내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즉, 과천자유학교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인지학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발도르프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이다. 아이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영혼의 빛깔과 높은 정신적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성과 감성, 의지가 조화된 교육을 하며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과 방식을 통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자유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 영혼, 정신의 건강한 발달
- 머리, 가슴, 손발의 조화로운 발달
- 책임감에 기반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 고유한 개성을 발현하는 창의적인 인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인간
-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

또한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함을 강조한다.

나. 과천자유학교 교육과정⁷¹⁾

◆ 기본 체계

- 8년 담임제를 통한 학급 공동체와 연속적 교육실현
- 주요과목을 3~4주에 한 과목씩만 돌아가며 학습하는 주기집중수업
-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적 교육과정 추구
- 다양한 공예활동, 노작교육을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
- 교과서가 없는 수업
- 계량적 수치가 아닌 개성을 서술하는 통지표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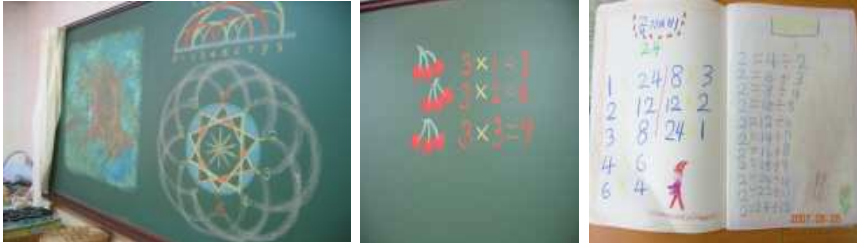
◆ 교육과정의 내용 (과천자유학교, 2010)

71) 과천자유학교(2010), www.gcfreeschool.kr.

<표-2>

1~3학년(8~10세)	
<p>첫 3년간의 학교생활은 자연과 언어와 음악의 내적인 측면을 경험하려는 아동의 요구를 고려하며 진행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탄할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배운 것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정은 배우는 것에 대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아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p> <p>이 시기의 교사는 아동이 내부와 외부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도록 돕는다. 즉, 아동이 신체와 환경의 올바른 관계를 알아가면서 내적 경험과 육체의 조직기관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숨 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리드미컬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미한다.</p>	
①형태 그리기	<p>아이들은 직선과 곡선을 온 몸으로 표현해 보고 그려본다. 주로 크레용이나 연필을 사용해서 종이에 그리며,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 집중된 노력과 동작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형태의 선들을 통해 내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연습을 한다. 아이들은 이 동작 속에 있는 균형, 비율, 대칭, 통합의 특징을 느낀다.</p>
②우리 말·글	<p>흔히 말하는 ‘국어’ 시간으로 한글을 배우고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수업의 주를 이룬다. 1학년 때에는 주로 놀이와 노래를 통해 자·모음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교사가 칠판에 적어둔 내용을 베껴보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아이들이 바른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들이 필기하는 내용은 품사별로 다른 색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적게 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알아가는 연습이 된다.</p>
③외국어수업	<p>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방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글자를 배우지 않은 채 놀이와 노래, 교사와의 간단한 대화 속에서 외국어의 특성을 몸으로 익힐 수 있다.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 세상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세상에 대해 좀 더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이다.</p>
④집짓기와 농사짓기	<p>3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여행은 지구로 내려온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재료들이 어떻게 세상에 필요한 생산물로 바뀌는지 알게 된다. 이는 이후에 경제학과 생태학으로 들어가는 통찰력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교육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p> <div data-bbox="312 1402 675 1644"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94 1402 1053 1644" data-label="Image"> </div>


<표-3>

1~3학년(8~10세)	
⑤수와 셈	<p>1학년에서 아이들은 숫자의 전체성과 개별성을 경험한다. 숫자들은 원형적인 성질을 강조하여 소개된다. 하나는 통일, 둘은 이원성 등, 아이들의 세상에 익숙한 그림을 사용하고 리듬 있게 숫자를 세어 나간다. 2학년 때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서 점점 머리로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 간다. 3학년부터는 수량을 측정하는 것이 말로 시작되어 신체의 비율에 기초한 전통적인 수량재기로 시작하여 길이, 시간, 중량 등의 기본 단위들을 알아간다.</p> 
⑥그림 그리기	<p>‘습식수채화’라고 불리는 것은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파랑, 노랑, 빨강의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색상의 내적인 언어에 귀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물을 베끼고 묘사하지 않고 색 그대로의 성질을 보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수업을 한다.</p>
⑦음악	<p>1~3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내적인 생명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감정이입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오음계의 노래들을 부르고 연주한다. 아이들은 간단한 나무 리코더 등으로 연주를 시작한다. 2학년을 지나면 곡의 종류들은 늘어나고 학급에서 작은 솔로 부분을 맡기도 한다. 3학년에서는 주음이나 온음계 시야와 관련된 음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때 아이들은 철자와 음계 기본법을 접하게 된다. 리코더는 음악 시간에 가장 중요한 악기로 양손이 조화롭게 쓰여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소리를 내는 데 적당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p>
⑧오이 리트미	<p>좋은 리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는 소리와 음악의 소리가 공간에서 동작을 통해 보이도록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것은 민첩한 감각의 인식력과 육체적 움직임이 균형을 맞추도록 돕는 수업으로 발도르프 학교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과목이다.</p>
⑨수공예	<p>두 손의 조화를 이루고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뜨개질을 통해 아이들은 냄비받침, 주머니, 리코더 집 등의 유용한 물건들을 만든다. 예술과 실용적인 요소가 결합된 손 기술의 습득은 이후에 실질적인 지성의 기초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p>

<표-4>

4~5학년(11~12세)	
<p>4~5학년 아이들은 10, 11세가 되며, 이 시기는 아동기의 중심기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지만 자아의식은 계속 커져 교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어린 개인 집단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개개의 아이들은 뚜렷한 재능과 도전을 가진 강한 인격체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리듬을 갖는 교수법에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 교수법이 아동들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라면, 도전적이고 생생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아활동이 혈액순환과 호흡의 관계에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4학년 후반부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들어선다. 세상을 향한 의문들이 생기게 되고, 공간과 시간 사이에 구별지우기를 시작한다. 사실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세계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혼란이 동반된다.</p> <p>이제까지 교사에게 보여준 신뢰는 도전이 되고, 우습고 날카로운 비평적인 행동으로 시험받게 된다. 반면 친구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아이들의 집단 안에서 구분되는 역할들이 생긴다. 교사는 교실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아이들의 동요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합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p>	
①우리말·글	이제와는 다른 언어적 자질을 위해 깨어낼 필요가 있게 된다. 문법적인 규칙을 사고의 요소로 들어오는 일이 중요하다. 동사의 시체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 경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화법의 특징을 익히게 된다. 어형변화, 문장구조, 구두법, 능동태와 수동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된다.
②외국어수업	4학년부터 외국어의 읽기·쓰기가 시작된다. 언어적인 목표는 우리말·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어의 경우 이것들과 상응하는 단계에서 일상생활의 상황에 관한 회화연습이 같이 한다.
③음악	3학년때 시작한 기본법이 발전되며, 음악의 법칙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익힌다. 같은 음으로 노래 부르고 연주하기는 이제 여러 파트로 발달하게 되고, 합주나 합창이 가능하게 된다.
④형태그리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을 표현하며 아름다움과 정확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학년부터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콤팩스, 자 없이 시작한다. 손과 눈으로 충분히 연습한 후, 기하학이 5학년부터 시작된다.
⑤수공예	<p>장갑과 양말 등을 짜고, 솜으로 채워진 동물 인형을 만든다. 동물의 본을 뜨면서 동물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형태그리기에서 배운 것과 같은 교차 형태로 수놓기를 하게 된다.</p> <div data-bbox="311 1418 613 167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32 1418 976 1675" data-label="Image"> </div>





<표-5>




4~5학년(11~12세)	
⑥동네 학(지리)	<p>아이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배운다. 5학년부터 지리가 시작되면 전체 국가를 공부하며 다른 나라와의 지리적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p> 
⑦동물 학	<p>자연에 대해 배울 때 인간과 친밀한 동물을 먼저 시작한다. 동물들은 특별한 하나의 감각, 전문화된 운동 등으로 특별한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동물은 초식동물, 육식동물, 발달된 시력을 가진 동물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인간은 잠재적으로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동물들과는 다른 능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능력들은 전체 동물 왕국의 종합이면서 동시에 원형으로 보여진다. 아이들은 인간이 동물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p> 
⑧식물 학	<p>하등에서 고등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어린이와 사춘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관계가 있다. 다르게 표현되는 식물 형태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식물이 지구·태양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일년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진화와 생태라는 중요한 테마가 생물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내적 실마리를 제공한다.</p> 

아이들은 현재에서 벗어나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로부터 시간이 진행되어 왔음을 상상한다. 5학년에서 고대인도, 중국, 고대페르시아, 매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문화 등을 배우는데, 초기문명의 문화는 이야기와 그림들을 통해 배운다. 그리스 신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기도 한다.






⑨역사



6~8학년(13세~15세)일반 국·공립 초등6학년, 중학교1,2학년과 동등	
<p>이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사춘기)에 이르렀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두 번째 형태 변화를 겪게 되고, 영혼생활은 내면속으로 분출된다.</p> <p>교사는 아이가 이 시기에 자신의 고유한 시간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리듬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세상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한다. 이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지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적 작업의 기본 태도이다. 새로운 심리적 상황과 물리적 세계에서 가진 새로운 감각들로 그들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탐색의 신호들이 비치게 된다.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된다.</p>	
①역사	<p>6학년에는 로마 역사와 중세시대를 배우게 되며 그 안의 인과성을 배운다. 이슬람과 동양의 만남을 통한 기술적, 산업적인 영향 등이 주요 주제가 된다. 7학년에는 유럽인들에 의한 발견과 신대륙 발견, 르네상스 등이 주제가 되고, 8학년들은 실제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산업의 발생과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존재를 보게 되며,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세계의 시민이 되어간다.</p> <div data-bbox="322 817 712 1089">  </div> <div data-bbox="720 817 1123 1089">  </div>
②물리학	<p>6학년에서 시작되며, 과학에서 인과성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론을 다루지 않고 청각, 광학, 열, 자기, 정전기 등의 기본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7학년에서는 기계적인 실험을 실행하고 즐겁으로써 과학적 방법에 다가간다. 8학년에서는 역학의 작용과 증기기관, 모스 부호 등을 통해 물리학을 배운다.</p>
③화학	<p>흔히 불과 연소과정으로 시작하여 석회암의 연소, 산, 알칼리와 금속 등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기술의 역사·문학적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8학년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유기적인 삶의 과정, 물질의 창조와 변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p> <div data-bbox="312 1412 662 1676">  </div> <div data-bbox="681 1412 1033 1676">  </div>

6~8학년(13세~15세)일반 국·공립 초등6학년, 중학교1,2학년과 동등		
④생물 학	<p>아이들이 사춘기의 완전한 심연에 잠기기 전 상대적으로 덜 자기 몰입적이고 인간존재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과목을 도입한다.</p>	
⑤우리 말·글	<p>6학년에서는 가정법을 가볍게 배우고, 7학년에서는 느낌과 감정의 표현들, 감탄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자신을 표현하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방법들의 탐색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p> <p>홀로, 여럿이 하는 시와 산문의 낭송을 연습하게 되며, 서로의 특성에 대해 사려 깊은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서사시와 서정시, 극시에 대해 보면서 비유와 직유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특히 드라마는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설화, 민요, 연극 등이 중요한 예술작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8학년에서는 이 모든 작업을 총망라하는 연극을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한다.</p>	
⑥기하 학	<p>이론적 증명을 연습할 때, 각도, 삼각형, 내접되거나 주변의 원과 함께 사변형에 따른 모든 종류의 정의를 사용한다. 또한 이런 것들과 연관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습한다. 8학년에서는 해부학적 비율을 통해 해부학과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원근법에 의해 그려진 건축물은 역사와 그리기를 연결시킨다.</p>	
수공예	<p>아이들은 실용적인 물품들을 만들고 8학년부터 발을 움직여 작동하는 재봉틀을 사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옷도 만들어 보게 되며 연극을 위한 소품들도 직접 만들게 됩니다.</p>	

<표-8>

6~8학년(13세~15세)일반 국·공립 초등6학년, 중학교1,2학년과 동등		
체육	체조와 스포츠 수업은 자신의 경험들을 정리해주는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기구를 사용한 운동과 도약 운동은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구기 종목은 단독종목보다 중요한 사회적 균형감을 키워줄 수 있다.	
오이리트미	오이리트미는 이 나이 또래에게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준다. 발라드나 익살스러운 곡들이 효과가 있다. 언어 오이리트미 역시 예술적 연출을 길러주어 언어 공부를 도와준다. 아이들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꺼리고 자신 없게 될 시기에 오이리트미가 영혼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활동으로 크게 자리 잡는다.	
음악	청음은 주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게 되며, 독주와 작곡, 합창 등이 수업의 중심 부분이 된다. 다양한 작곡가와 스타일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작곡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일 년 프로젝트	8학년이 기본과정 졸업을 준비하며 실시하는 개인 프로젝트이다.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택해 일 년 동안 주제에 관한 집중 연구를 실시한다. 아이들은 멘토를 정해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주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체적인 자아의식이 대폭 성장하는 시기이다.	
	  	

◆ 상급과정-9~12학년(16~18세) 일반 국·공립 중3학년, 고등학교1, 2학년과 동등

9~12학년은 상급과정으로 불린다. 과천자유학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상

급과정이 진행되었다.

상급학년에서는 사춘기 전후의 아이들이 사회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진행은 ‘새로운 제 3의 탄생’(영혼과 감각체, 독립체의 탄생)으로 보았다. 이제부터는 독립심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다. 한 개인의 내적인 삶은 외부 세계와 직면하게 된다. 이 관계 속에서 판단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학습의 내용은 이제껏 배워왔던 것을 토대로 하여 능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도전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준다. 자발적 행위로의 의무가 발견되어지는 개인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런 점에서 상급학년 교사는 삶의 모델로서 바른 판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아이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맞추어 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교육과정, 즉 일반적인 학과목과 더불어 목공, 환경연구, 전자공학, 금속세공, 디자인, 아이돌보기 등 다양한 교육이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 수업과 함께 진행되고, 교사는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상급학년의 경우 아직 도입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그 교과과정과 내용의 체계에 있어 어떤 성과를 갖고 있으며 발도르프 학교 교육방향과 잘 부합하는 것 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명확한 자료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의 교육 프로그램인지도 의문인 시점이다. 향후 상급학생의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연구와 보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자유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독일 발도르프학교의 교육이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담임과정과 교과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과내용의 습득이 거부감 없이 진행된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성향을 계속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주려

고 하며,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예술을 통해 상급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신체와 영혼, 정신이 모두 단련되고 통합되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자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생활에 예술이 녹아있다는 점이며 수업에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수학을 배우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과 색을 사용하고, 역사를 배우면서도 연극과 문학, 미술사와 함께 한다. 아이들은 역사시간에 칠판에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리며, 자신들만의 ‘에포크 노트’에 기록한다. 오이리트미는 음악과 춤, 색채, 연극을 포괄한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순서를 노래로 만들고, 능동적으로 실험에 임한다.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절대로 주지 않으며 나이에 맞는 단계에 맞추어 진행하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학년간의 연계성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속성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 과천자유학교 시간표⁷²⁾

- ▶ 1, 2교시 8:20 ~ 10:00
- ▶ 7교시 마침 ~ 3:25 (1~8학년) / ~ 3:35 (9~10학년)
- ▶ 45분 수업에 5분 휴식 기본 (예외: 탐입과정 5교시는 마을버스시간 때문에 40분)
- ▶ 상급과정 4교시 후 10분 휴식(본관이동시간 확보)

72) 과천자유학교(2010), www.gcfreeschool.kr.

<표-9> 2010년 1학기

요일	학년	1	2	3	4	5	6	7	8	학년	9	10
월	3 (10:30~)	수공예	음악	영어	중국어	오이리 트미/수 공예	수채화	학급회 의	중국어	3 (10:30~)	영어	수학연 습
	4 (11:20~)	중국어	중국어	음악	수공예	오이리 트미/수 공예	재량	영어	목공예	4 (11:20~)	수학연습	영어
	5 (12:10~)			중국어	음악	영어	중국어	수학연 습	목공예	5 (12:15~)	수학연습	국어연 습
	6 (1:50~)								연극연 습	6 (2:00~)	국어연습	목공예
	7 (2:40~)								연극연 습	7 (2:50~)	재량	목공예
화	3	영어	영어	수공예	한문	중국어	음악	오이리 트미	영어	3	농업	중국어
	4	나들이	오이리 트미/수 공예	영어	영어	체조	중국어	음악	학급회 의	4	농업	수공예
	5		오이리 트미/수 공예	재량	체육	체조	영어	중국어	재량	5	중국어	수공예
	6				수채화	수채화	서예	체육	수공예	6	체육/체 조	체육/체 조
	7				수학연 습	수학연 습	서예	체육	수공예	7	체육/체 조	체육/체 조
수	3	중국어	중국어	수채화	오이리 트미/수 공예	재량	수공예	영어	음악	3	영어	수학연 습
	4	수채화	나들이	중국어	오이리 트미/수 공예	영어	중국어	미술	음악	4	수공예	영어
	5		나들이	체육	중국어	음악	재량	미술	중국어	5	수공예	영어
	6			만들기	만들기	서예	체조	목공예/ 수공예	체육	6	미술	오이리 트미
	7			만들기	만들기	서예	체조	목공예/ 수공예	체육	7	미술	오이리 트미
목	3	수공예	영어	수공예/ 재량	중국어	음악	영어	재량	오이리 트미	3	중국어	국어연 습
	4	영어	수채화	수공예/ 재량	음악	영어	목공예/ 오이리 트미	중국어	미술	4	음악	중국어

	5		체육	영어	영어	중국어	목공예/ 수공예	한문	미술	5	음악	영어
	6							목공예/ 수공예	영어	6	오이리트 미	미술
	7							목공예/ 수공예	국어연 습	7	오이리트 미	미술
금	3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수공예	한문	음악	수학연 습	3	영어	수학연 습
	4	재량	수공예	재량	재량	중국어	영어	영어	중국어	4	목공예	컴퓨터
	5		중국어	점심	점심	한문	음악	중국어	영어	5	목공예	컴퓨터
	6			수영	수영	만들기	목공예/ 오이리 트미	수학연 습	한문	6	컴퓨터	음악
	7			수영	수영	만들기	목공예/ 수공예	재량	재량	7	컴퓨터	음악
시수		10	14	18	20	21	21	23	25		25	25

우리나라 발도르프 중학교의 미술과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수업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이 단계에서는 본 수업에 대비한 기초지식과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토론과 자료 수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실기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익힌 지식을 발전시켜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이론수업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수업보다는 오리엔테이션과 실기수업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에 많은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 교육평가

과천자유학교에는 일반적인 다른 중학교와 같은 성적위주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적수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수위주의 성적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는 개별적인 질적평가를 기준으로 학생의 수행과정, 생활태도, 변화 결과들이 서술형식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특성화 학교도 있다. 인가받은 학교 중 하나인 이우학교의 경우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평가는 기준과 방법을 미리 알려주어서 평가가 미술적 능력의 발달을 적극

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한다. 학습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모둠별 과제는 협동성을 위주로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 교재나 평가 도구의 개선에 적절히 활용한다. 또한 학습 과정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결과를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가에게 알려주어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한다. 평가 방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⁷³⁾

- (1) 평가의 목적이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 (2) 평가는 학년 말에 몰아서 하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한다.
- (3)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고 수업시간에 모든 활동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4) 평가가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가의 과정을 통해 미의식이 계발될 수 있는 평각 방법을 모색한다. 즉, 적절한 피드백을 유도한다.
- (5)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충실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현재 일반 국·공립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실제 적용에 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의 단합적인 활동, 과정위주 평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에서는 쉽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시간을 갖고 탐구하는 수업보다 개별적 수행이 많이 진행되고 질적인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미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 형제, 부모님께 부탁하거나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에게 쉬는 시간에 허겁지겁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런 문제는 이론과 실제적용이 분리된 허상적인 교육제도 상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교사들의 수업이 교육 과정에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은 문제점 또한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주어진 시수와 학교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학생들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에 관해 연구하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도르

73) 분당 이우학교(2002), www.2woo.net.

프학교에서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에게 가치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독일 발도르프학교와 한국 발도르프학교 비교

앞서 보았듯이 독일에서 출발한 발도르프학교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기본 수업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 밖의 과목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다음과 같다.

<표-10>

구 분	독일 발도르프 학교	한국 발도르프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없음 · 교사협의체 구성 · 8학년 담임제 운영 · 무시험 · 전자매체 활용 불가 · 교과서가 없는 수업 · 에포크 수업 실시 · 학급인원: 35-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없음 · 교육 공동체 및 교육 연구소 구성 · 8학년 담임제 운영 · 지필, 수행평가 실시하는 학교도 있음 · 컴퓨터 및 프로젝트 활용 · 필요에 따라 교과서 참고 및 학생 스스로 교과서 제작 · 에포크 수업 실시 · 학급인원: 10-20명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성향이다. 독일 학생의 대부분은 발도르프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독창성과 정서교육의 측면에서 만족하여 학교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학생수도 많고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고루 모여 집단을 이룬다. 하지만 한국의 발도르프 학교는 대체로 도시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권유, 장애가 있는 학생이 주로 다니고 있다. 그것은 발도르프 학교의 교수방법이 독일에서는 그 독자성과 효과를 꾸준히 인정받아 하나의 체계로 자리잡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교육

의 대안책, 차선책으로만 여겨지는 치유의 의미가 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업의 목표와 방향, 커리큘럼은 독일의 발도르프학교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독일에 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교사를 채용할 때 있어서 발도르프학교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힌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두 나라 모두 발도르프 교사 양성 프로그램교육을 운영하여 선생님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발도르프학교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안교육의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독일의 발도르프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전자매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수준에서 인터넷 검색을 허용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시대흐름에 유동적으로 부흥한 것으로 발도르프학교가 가진 취지나 특징은 그대로 살리면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율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독일에서는 교육과정이 상급학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급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도 드물고 꾸준히 이루어지지도 않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14세부터(사춘기)는 자신고유 삶의 형성과 판단력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내면적인 시도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학년부터 12학년 안에서 여러 가지 수업과목들의 학문적인 특성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흐름이 끊기고 있다. 자신의 삶의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수업으로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고정적으로 미술과목을 정해놓고 수업을 하지 않지만, 모든 수업 속에서 미술이 살아 숨 쉬고 있었으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탈학문적 통합교육의 의미를 실현하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공통점은 단순히 언어의 개념화로 지식을 축적하는게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있는 내용으로 재구성 하고 내면화 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에 적용한 미술지도 방안 연구

1)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을 적용한 미술과 수업지도안

가. 단계별 포르멘 수업

포르멘 수업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인지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영혼, 정신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포르멘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능력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혼의 수련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부적 성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외부적인 대상의 관찰을 통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내면의 정신을 통해 그리는 것을 우선한다. 직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곡선, 기하도형, 자연대상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그리는 동안 그날의 기분, 선호하는 형태,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가운데 외부의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더욱더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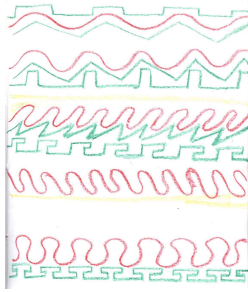
◆ 본시 학습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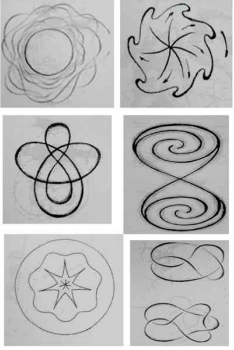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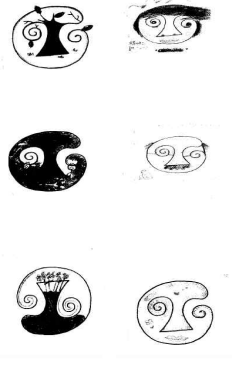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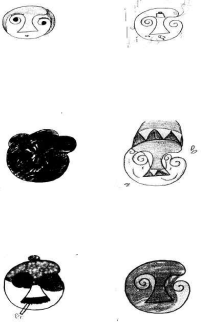
선과 도형을 그린다는 것은 선이나 도형과 함께 자신(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며 그 선과 하나가 되어 그려나가는 동안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해 나간다. 형태를 그렸던 그림들이 기하학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체험을 통해 아이는 기쁨을 발견하고 나아가 조금씩 세계에 적응하며 내면의 건강한 의지의 힘을 기를 수 있다.

◆ 학습 목표

- ▶ 포르멘(형태그리기)을 이용하여 자연의 탐구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나아가 사람의 얼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려 넘으로써 감성과 집중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 ▶ 추상적인 도형을 여러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 창조의 기쁨을 맛보며 직선과 곡선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알 수 있다.

본시(1/3)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단계별 포르멘 수업	대상	중학교 1학년 (평균 40명)	장소	미술실
학습 목표	1. 포르멘 수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2. 주제에 맞게 포르멘을 표현할 수 있다. 3. 포르멘을 통하여 학습자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단 계	학습내 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도 입	출결확인 학습목표 제시	-출결확인 및 인사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인사 -자리에서 대답한다.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전체 학습		주의집중 하도록 한다.	
전 개	포르멘 이해	-포르멘이 무엇인지 알 려주고 어디에서 출발하 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일반적인 드로잉과 차 이점이 무엇인지 인지한 다.	전체 학습	PPT	참고작 품 을 이미 지를 통 해 보여 준다.	
전 개	포르멘 체험1	-파스텔, 색연필로 학생 들에게 시범 보인다. -포르멘 선연습 1단계  -기본적인 직선과 곡선 의 흐름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내면의 감정을 느끼며 표현을 시도해본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다.	개별 학습	활동 지	-선의 표 현에 정을 도록 한다.	

단 계	학습내 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전 개	포르멘 체험2	<p>-포르멘 선연습 2단계</p>  <p>-자연속에서 얻어지는 모양을 연상하며(해,꽃, 나무,구름 등)자신만의 형상을 그려보도록 한다.</p>	<p>-동, 식물, 자연풍경의 변형을 자기 나름대로 모양을 연구하고 연습한다.</p> <p>-생각속에 행동의지와 자유로운 내면의 손놀림이 묻어나도록 한다.</p> <p>-선묘를 하는 동안 형태를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배운다.</p>	개별 학습	활동 지	- 형태에 대한 느낌의 상 표 표현은 곧 자아의 표현이다.	
	포르멘 의 독창적 표현	<p>-포르멘 체험 3단계 (창작단계)</p> 	<p>-1,2단계를 바탕으로 얼굴 + 자연이라는 주제를 갖고 독립적인 표현을 한다.</p> 	개별 학습		- 학생은 공간과 시간의 살아있는 학습을 체험하고, 어떤 자신만의 독립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단 계	학습내 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감상	-다른 친구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별로 나와서 발표하도록 한다. -의문점을 질문한다.	-기존의 관념적인 기억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향적인 모양 언어를 나타내도록 한다.	개별 학습		-자유로운 상태 속에 자연스럽게 독창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다.	
정리	차시예고 및 뒷정리	-자기주변의 뒷정리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다. -다음시간 수업방향과 내용을 안내해 주고, 준비물을 알려준다.	-자기가 표현한 것을 소중히 포트폴리오에 수집하고, 주변정리를 한다. -준비물을 숙지한다.			수행한 과정의 모든 과정물,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 지도시 유의점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 친구 및 교사가 상호 작용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업을 진행한다. 교사가 지시하는 데로 행동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면서 포르멘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자들은 여러 다양한 재료(색연필, 싸인펜, 형광펜, 볼펜 등)를 가지고 나누어진 자료 안에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첫째, 교사는 딱딱한 교실 분위기가 아닌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사는 시청각 자료 및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동기유발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먼저 간단히 학습자들에게 포르멘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이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넷째, 이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해주도록 사전에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습자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으며, 그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된 성향을 발견하는데 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표현한 작품을 본 후, 교사는 여기에 함부로 가치판단 해서는 안 된다.

나. 색채 체험 수업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번지기기법은 그 형식적인 면과 학습의 내용적인 의미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예술론을 잘 반영한다. 이 수업은 색을 통한 미적 경험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적 인간의 실현을 학습의 목표로 삼는다. 각 각의 색을 ‘형상의 색’과 ‘빛의 색’으로 구분하여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슈타이너의 색채학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의 생명, 영혼, 정신, 죽음 등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체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색의 유희를 통한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수업의 지도안을 구성해 보았다. 총 3차시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주제의 표본을 마크 로스코의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의 작품의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더욱이 보편적인 의미의 주제 선정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언하였던 양식상의 특징에 기원한다. 부드러운 색채들은 희미한 윤곽선 주변으로 스며나오는 듯하며 이러한 형태는 원시인류에게 나타났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신성함을 암시한다. 또한 색의 숭고한 존재론적 의미를 회복시키고자한 그의 노력은 슈타이너의 예술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지도안에서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슈타이너의 습식수채화를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미술사적 양식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 학습 주제 : 습식수채를 활용하여 추상화그리기

본 계획안은 총 3차시에 이르는 수업에 대한 학습 프로젝트이다. 수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발도르프학교의 ‘습식 수채화’의 교수법을 활용하여 추상 미술 수업에 접목해 보았다. 우선 1차시에서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를 통해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미술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감상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연구 작가로 색면추상화가인 로스코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양식적 특성인 ‘색의 번짐’과 내면적인 감성과 심상을 표현적으로 추상화시켰다는 점에서 발도르프식의 ‘습식수채화’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코의 ‘뜨거운 추상’계열은 몬드리안 식의 ‘이지적인 추상’에 비하여 학생들의 직관적인 반응과 감성의 표현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추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본 계획안의 1차시에서는 로스코를 중심으로한 추상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감정과 조형요소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2차시에 진행될 ‘표현’수업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1차시 끝에 차시과제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간략한 수필을 써오도록 한다.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 중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사건, 혹은 장면이나 느낌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재인식은 2차시에서 진행될 ‘습식 추상 표현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차시는 표현활동이 중심이 된다. 전시 과제를 기반으로 추상의 주제를선정하여 각각의 작품을 수채화를 통하여 표현한다. 특징적으로 수채화의 재료적 특징과 표현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설명 및 지도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요소는 감정의 반응에 앞서 표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저마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보다 솔직한 추상화를 시도 할 수 있다.

단, 수채화로 재료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발도르프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작이 쉽고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의 질적 가치와 더불어 차시 내에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효율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차시의 말미에 3차시의 과제로 완성된 작품에 대한 ‘전시’계획을 세워 다음 차시 이전에 학생들 각 각의 작품들을 미술실내에 전시하도록 한다.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그리고 환경과 어울림 등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3차시는 ‘전시’와 ‘대화 토론 수업’으로서 학생들은 전시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친구의 작품에 대해 느낀점을 공유하는 수업을 구성한다. 자신의 느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다른 이의 생각과의 차이에 대해 수용할 줄 아는 민주적인 태도의 함양을 기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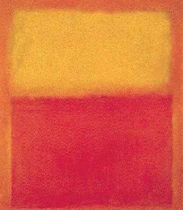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본 계획안은 내면의 ‘유희충동’을 수채를 통해 표출하고 정화하며, 타자와의 이해의 폭을 ‘대화’로 접근해가는 ‘공존’을 총체적인 기대효과로 삼는다. 또한 일반수채화 수업과는 다르게 관찰 표현 보다 자신만의 내면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감상, 표현, 미적 체험과 전시 및 토론수업을 병행한 통합적인 방법으로 구성 되었다.


- 본시 지도안은 감상에서부터 습식수채 추상화 표현 수업인 3/2차시까지 제시한다.

1차시-마크 로스코를 통한 추상의 이해

습식 수채를 활용한 추상화 그리기					
단원	마크 로스코를 통한 추상의 이해	대상	중학교 3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 목표	1. 마크 로스코 작품의 이해와 미술사적 의의를 알 수 있다. 2. 추상미술의 개념을 알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용하여 추상적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단 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및 도달점
		교사	학생			
준 비 (5 분)	준비, 진단 평가 및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료를 확인 점검한다. -감상지를 나누어 준다. 교과서 학습목표, 내용을 주지시킨다. 진단평가의 개념으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기존의 학습상태를 파악하고, 본시 수업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추상이 무엇일까? -추상미술을 본 적이 있어요? -추상 미술 중 떠오르는 작품이나 작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준비물 확인 -감상지를 받고 확인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서 학습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4~27.) 질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발표할 수 있다. 	전체 학습	p p t 활 용, 개 인 및 전 체 활 동	학습환경 조성 및 흥미유발
도	감상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코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를 보고 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느낌을 	개 별 학 습, 전 체 학 습	p p t 활 용, 전 체 학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 상 지 가 잘 잘 전달되

입 (10 분)		<p>감상한 후 <감상지>를 작성하도록 한다.</p>  <p>로스코/ 오렌지 위에 빨강</p> <p>· 감상지 작성 후 발문을 제시한다. -작품의 느낌을 말해 볼 사람 있나요?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조형요소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p>	<p><감상지>에 작성한다.</p> <p>· 감상지 작성 후 교사의 질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교사의 질문이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 체험위주의 질문이므로 작성한 감상지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p>		감상지	<p>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이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p> <p>· 발문시에 확실적인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포용한다.</p>
전개	발상 및 이론 수업	<p>· 추상에 대한 의미와 추상미술에 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표현계열의 추상에 한정하여 설명한다.)</p> <p>· 색면 추상에서의 두드러진 조형요소인 ‘색’에 대한 설명을 한다.</p> <p>· 로스코의 작품을 다시 감상 하면서 추상표현주의적인 색면추상을 이해시킨다.</p> <p>· 로스코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과 생애 그리고 작품의 변화과정을 ppt</p>	<p>· 추상에 대한 의미와 추상 미술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를 인지 할 수 있다.</p> <p>· 색이 주제인 추상에서 색채가 갖는 조형성을 이해 할 수 있다.</p> <p>· 로스코의 작품을 재감상 하면서 조형적인 눈을 통해 시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p> <p>· ppt를 통한 설명으로 로스코의 생애와 작품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p>	전체 학습	PPT 자료	<p>· 추상의 정의와 의미 이해 조형요소의 이해와 주변사물과의 응용</p>

	<p>자료를 통해 설명한 후 발문한다.</p>  <p>(특히, 작품에서의 색조의 변화와 함께 일치하는 그의 내면적인 변화에 집중하여 설명한다.)</p> <p>-로스코가 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p> <p>-로스코가 가장 불안하고 힘들었던 때는 어떤 작품을 했을까?</p> <p>-로스코가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고자한 이유는 무엇일까?</p> <p>(발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유도한 후, 로스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 및 그의 비극적인 에피소드들을 설명해 준다.)</p> <p>· 로스코와 유사한 다른 색면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준다. (버넷 뉴먼, 클리포드 스틸, 루이스 모리스, 헬렌 프랭크 탈러)</p> <p>· 1945년 이후에 전개되었던 다음의 색면추상회화의 미술사적 의의를</p>	<p>교사의 발문을 통해 자신이 작가의 입장이 되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p> <p>· 사회적 배경 및 작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 학생들은 감정의 조형화에 성공한 로스코의 추상화에 대해 더욱 심화화하여 이해 할 수 있다.</p> <p>· 다른 색면추상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여 색채를 주제로한 다양한 추상작품들과 작가들에 관해서 이해하고, 1945년 이후의 미국 색면추상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p>	전체 학습	PPT 자료	<p>· 학생들의 정서상의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로스코의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중에 자살로 마감하기전의 말년 작품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p> <p>-밝은 분위기의 중기 시기의 작품을 위주로 감상도판을 선정하여 설명한다.</p>
--	--	--	-------	--------	---

		설명한다.				
정리	정리 평가 (5분)	<p>• 형성평가를 실시한다.</p> <p>1) 점, 선, 면, 색채 등 순수한 조형요소만으로 표현한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p> <p>답) 추상화</p> <p>2) 색면추상의 대표적인 작가인 로스코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조형 요소는 무엇인가?</p> <p>답) 색채</p> <p>3) 로스코의 가장 마지막 시기 작품의 조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p> <p>답) 점차 어두워진다.</p> <p>• 과제를 내준다.</p> <p>-<가장 인상 싶었던 순간>을 간략한 수필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써오도록 한다. 분량은 자유롭게 한다.</p> <p>• 차시학습(표현) 예고하고 준비물(수채도구)을 숙지시킨다.</p>	<p>• 형성평가를 통해 로스코를 중심으로 색면추상의 의미와 조형의 특징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p> <p>• 차시학습에 대해 인지하고 동기를 갖을 수 있다.</p> <p>• 차시의 표현수업에 필요한 수채도구를 확실히 숙지할 수 있다.</p>	전체 학습	PPT 자료	<p>-형성평가 유인물 활용</p> <p>- 과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를 제시하면서, 과제를 통해 차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동기를 부여해 준다.</p> <p>-차시 준비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미리 실재도구들을 준비하여 보여주며 인지시킨다.</p>

<1차시 작품 감상 자료>



로스코-그을린붉은오랜자줏빛



로스코-무제-04



로스코-작품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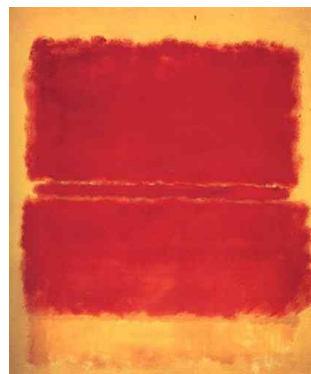
로스코-무제-08



로스코-작품34



로스코-작품04



로스코-작품29



로스코-작품23

로스코-작품05



무제 13

<감 상 지>

2010년	년	일	학년	반	이름:
작품을 보고난 처음의 느낌은 어떤가요?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느낌을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보아요.					

2차시 - 습식수채를 통한 추상표현

습식수채를 활용한 추상화 그리기					
단원	습식수채를 통한 추상표현	대상	중학교 3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 목표	1. 습식 수채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추상화로 표현 할 수 있다. 2. 자신의 의도에 맞는 수채화 기법을 익힐 수 있다.				

단 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학 습 형태	학 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및 도 달점
		교사	학생			
도 입	준비 및 과제물 확인 , 동기 유 발(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 조성한다. · 준비물을 확인한다. · 전시학습 상기시킨다. -로스코를 통한 추상이해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습식 수채를 통한 추 상표현> · 수업 안내 -표현의 절차상의 순서와 재료 사용의 유의 사항을 지도한다. · 수필 과제<가장 인상깊 었던 순간>을 확인 한 후 학생 몇 명을 지목하여 발표시킨다. · 과제를 바탕으로 추상 화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을 환기하여 추상미술을 재인식 할 수 있다. · 학습목표 인지 할 수 있다. · 표현 절차상의 순서와 재료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숙지 할 수 있다. · 수채화 도구들을 준비 하여 수업에 임할 수 있 다. · 전시 수필 과제물을 통 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수 있다. · 자신의 경험을 재인식 하여 추상의 주제를 생각 할 수 있다. 	전 체 학습	개인 및 전체 활동 , 과제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채 를 사용할 시 표 현 기 법 상 에 대 해 아 무 런 제 약 을 주 지 않 는 다 고 숙 지 시 킨 다. -(자유표 현을 통해 내면의 표 현을 마음 껏 표출하 도록 유도 한다.)

		활용토록한다.				
전 개	감상 표현 및 제 작(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를 활용한 다양한 기법들의 예를 발도르프 대안학교의 예시작들을 중심으로 ppt를 활용해 보여준다. • 곧바로 습식 수채 작품 제작을 진행시킨다. -기법 상에 제약이 없음을 주지시킨다. -자연스러운 수채화의 번짐을 마음껏 실험해 보고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작 시간을 갖게 한다. -완성된 작품보다 제작의 과정에 가치를 부여해 준다. -직감적인 느낌을 잘 나타내기 위한 수업이므로 여러장의 종이를 준비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재차 주지시킨다. -각각의 작품들에 제목을 지어보게한다. (제목은 지어봄으로서 자신의 표현에 대한 의미와 의도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작들을 통해 수업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다. • 예시작에서 시도된 실험들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심감과 동기를 가질 수 있다. • 준비한 수채재료를 통해 추상화제작을 할 수 있다. • 작품의 과정에서의 번짐은 효과를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회상하며 추상화할 수 있다. • 여러 장의 종이를 준비하여 갖가지 수채화를 통한 자유추상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 • 작품의 과정상에서의 체험이 강조됨으로 보다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 • 감정의 솔직한 표현으로 이해 마음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개 별 학 습	수 채 화 도 구 를 통 한 직 접 수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시켜주는데 주력한다. (음악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경향성이 짙은 음악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용한다.)

		한다.)				
정 리	작품 감상, 발표 및 차시예고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끼리 서로간의 작품에 대해서 짧은 대화를 나눌수 있는 자유토론시간을 준다. ·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 3명을 선정하여 자신의 작품을 제목과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도록 허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준다. · 수업을 정리하며 본시 수업에서의 수업목표와 의도를 다시한번 주지해 준다. · 차시 수업까지의 완료해야할 과제를 내준다. -자신의 작품들 중 한점을 골라 한 친구들과 상의하여 미술실에 전시장을 만들도록 한다. -전시의 제목 정하고 작품의 유형에 따른 배열 및 동선의 흐름 등에 유의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 전시를 하는데 있어 의문점과 필요한 정보를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끼리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자신의 표현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수업의 정리를 통해 습득 추상 표현의 수업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다. · 차시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시에 관련하여 자신의 작품 중 하나를 선정 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리의 선정과 전시제목을 정할 수 있다. · 본시 수업 중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다. 	개 별 활동	개 인 및 전 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깊은 작품에 대한 대화와 토론수업은 3차시에 있을 전시, 토론수업에 진행하도록 한다. ·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물을 소중함을 주지시켜 준다. · 차시에 있을 전시수업에 대한 필요자료들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요구할 시 참고할 수

		<p>하는데 유용한 사이트, 도서, 잡지 및 도구들을 소개해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 관련된 사항이나 과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없는지 물어본다. • 전시를 통해 차시에는 대화 및 토론 수업을 할 것을 예고한다. • 본시의 활동을 격려하며 인사하고 수업을 마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시에 진행될 전시를 대화 토론수업의 안내설명을 듣고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다. • 수업을 마치며 내면의 감정이 승화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있도록 준비한다.
--	--	--	---	--	--	-----------

다. 오이리트미 퍼포먼스

슈타이너는 신체, 영혼, 정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합된 전인적인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네 가지 구성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오이리트미 라는 독자적인 수업을 개발 하였는데, 신체를 통한 정신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법적으로는 피테의 색채학을 의상의 색상에 도입하고 주제나 언어를 몸동작으로 추상화한다. 행위를 진행하면서 음악의 리듬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 표출하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대에서 다른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치유와 자기 주도적인 감성체험을 하게 된다.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서 주장한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서로 다른 친구들끼리 조를 구성하여 서로의 장점을 교류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오이리트미 퍼포먼스는 발도르프 학교의 프로그램중 하나인 오이리트미와 현대미술의 한 장르인 퍼포먼스를 결합함으로써 학습자의 종합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창의적 발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오이리트미가 가진 색채의 특성과 신체적 행위에 내용을 포함하게 함으로서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려고 한다. 본 수업은 주체적인 학습자의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는 통합교육 으로서 지도안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시 학습 지도안

본시(1/3)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2. 표현 미술과 인간 <몸으로 표현하기>	대상	3학년- (평균 40명)	장소	미술실, 강당, 운동장
학습 목표	1. 행위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오이리트미의 감상한 후 그 의미를 알고 느낄 수 있다. 3. 오이리트미와 행위예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말 할 수 있다. 4.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행위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5. 주제에 맞게 그 둘의 특징을 조화시키고 창의적인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본시(1/1)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2. 표현 미술과 인간 〈몸으로 표현하기〉	대상	3학년- (평균 40명)	장소	미술실, 강당, 운동장
학습 목표	1. 행위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계획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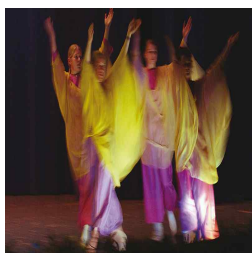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도 입 (5 분)	출결확인	-출결확인 및 인사	-인사	전체 학습	PPT 자료	수업목표 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주의집중 을 하도록 한다.									
	동기유발	-ppt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ucc를 통해 보여준다. 퍼포먼스가 뭘까?	-자유롭게 손들고 대답한다. - 회화나 조각의 작품에 의하지 않고 미술가의 육체적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조형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절차 안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오늘 할 수업내용을 알려준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개(40 분) 전 개	퍼포먼스의 이해, 15'	-미술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작가, 특징, 개념을 설명해 준다. -20세기의 미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존 케이지를 음악 감독으로 하여 결성된 커밍햄 무용단의 영향과 액션 페인팅이래 미술에서	-감상기록지를 활용하여 중요 내용을 정리한다. ()종형교 3학년()반 ()번 이름() <table border="1"><tr><td>작가명</td><td>제목</td></tr><tr><td>기</td><td>시대</td></tr><tr><td>재료</td><td>소재</td></tr><tr><td>주제</td><td>분도</td></tr></table> 주제명 : 1111호 '1111' 2등분 '작품 본 도구본' 1등 분할을 2번 반복본' 표현방법은 어떤가? 그 표현 방법은 어떤 요소를 사용하? 어떤양식이나 재료 있는 것은 좋은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려 하였는가? 2등기 특정 몇 도면에는 적용인가? 2등분 2.1기법으로 그려서 어떤 것이나 여러가지 있다.	작가명	제목	기	시대	재료	소재	주제	분도	전체 학습	PPT 자료	퍼포먼스가 등장한 사회적배경을 설명해주면서 관련된 역사, 문화도 같이 알려준다	교과서 참고
	작가명	제목													
기	시대														
재료	소재														
주제	분도														

	공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음악, 문학, 조형예술등 여러장르를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표현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 되었다.					
발문 제시	<p>-다양한 작품을 보여준다. 그 중 백남준의 작품을 제시한 후 질문한다.</p>  <p>-작품속의 인물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인물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 왜 바이올린을 끈에 묶고 가고 있을까요? - 왜 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표현했을까요?</p>	<p>-이 작품은 행위예술의 한 장면으로 우리나라 출신 작가인 백남준씨가 한 퍼포먼스라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어떠한 생각을 표현하는 데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쓰지 않고 몸과 행위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p>	전체 학습	PPT 자료	<p>-감상영역과 범위가 방대하므로, 대표작품만을 선정하여 감상지도 하도록 한다.</p>	교과서 참고
자신의생각 표현, 10'	<p>-느낌 질문하기</p> <p>-퍼포먼스 작품에 자신의 느낌이 어떠한지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즉흥적인 생각을</p>	<p>-느낌 얘기하기</p> <p>-즉흥적이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한 느낌이 든다. 잘 모르겠다.</p>	전체 학습	PPT 자료		

		<p>이야기 하도록 유도한다.</p> <p>-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질문한다.</p>	<p>등의 다양한 자기 생각을 말한다.</p> <p>-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p>				
	퍼포먼스 계획 15'	<p>-4그룹으로 조를 나누어 주고, 2분의 짧은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수업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별로 주제를 선정해 주어도 좋다.</p> <p>-계획한 것을 활동지에 적도록 한다.</p>	<p>-조원끼리 모여 앉는다.</p> <p>-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한 후 서로의 의견에 관해 토론한다.</p> <p>-궁금한 것을 질문한다.</p> <p>-활동지를 작성한다.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 홈프로젝트로 한다.</p>	모둠 학습	활동지 배부	<p>-그룹을 나누어 줄 때 학생의 기질과 성향을 고려하여 서로 보완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끼리 묶는다.</p>	
정리	차시예고	<p>-참고가 될 만한 책이나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알려주어 조별로 홈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한다.</p> <p>-다음시간 수업목표와 진행할 내용을 안내해 준다.</p>	<p>-선생님이 안내해준 정보와 내용을 인지한다.</p>				

본시(2/3)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2. 표현 미술과 인간 <몸으로 표현하기>	대상	3학년- (평균 40명)	장소	미술실, 강당, 운동장
학습 목표	1. ‘오이리트미’의 감상한 후 그 의미를 알고 느낄 수 있다. 2. ‘오이리트미’와 행위예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말 할 수 있다.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도 입 (5 분)	출결확인	-출결확인 및 인사	-인사	전체 학습	PPT 자료	수업목표 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주의집중 을 하도록 한다.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제사	-백남준의 작품을 보여 주면서 무엇을 하고 있 는 것인지 질문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지난시간에 학습한 내 용을 회상하여 대답한 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개(35 분) 전 개	‘오이리 트미’의 이해, 15’	-학생들에게 아직 생소 한 활동인 오이리트미 에 대해 설명해준다. -동영상으로 오이리트미 를 보여준다. -‘오이리트미’란? 오이리트미를 인간의 몸 을 통해서 관념을 색과 소리로 보여주는 예술로 서 발도르프학교의 창시자 인 독일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창안하여 1912년 선보인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 고 오이리트미에 대해 이해한다. -동영상을 본 후 오이리 트미에 대한 느낌을 간 략하게 자신만의 감상 노트에 적어본다. -성인들의 오이리트미, 아이들의 오이리트미의 차이를 느껴본다.	전체 학습	PPT 자료	-오이리 트미 사진자료 가 포함된 소개글과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프린트물 로 나누어 준다.	프 린 트 참 고

						
		<p>-오이리트미에 나오는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알고, 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본다.</p>				
오이리트미 따라하기 10'	<p>-오이리트미 동작을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동작과 음악을 준비한다.</p> <p>-체험해본 느낌을 묻는다.</p> <p>-1차시에 나뉘어진 그룹별로 모여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곡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p> <p>-선곡한 곡에 그 리듬에 가장 조화로운 율동을 붙여보도록 한다.</p> <p>-음악과 율동에 맞는 옷의 색깔을 생각해보도록 한다.</p>	<p>-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따라해 본다. 그 안에서 리듬감을 느껴본다.</p> <p>-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발표한다.</p> <p>-조원들과 토의하여 곡을 선정하고 선정한 곡에 대한 이유를 활동지에 적은 후 발표한다.</p> <p>-음악을 느끼며 그 리듬과 어울리는 율동을 조원들과 함께 의논한다.</p> <p>-음악과 율동에 어울리는 옷의 색을 조원들과 상의 하여 결정한다.</p>	모듬 학습	PPT 자료, 음악, 활동지	<p>-보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직접 따라해보고, 음악과 색, 신체행위의 조화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p>	동영상 참고
퍼포먼스와 오이리트미의 비교, 10'	<p>-퍼포먼스와 오이리트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p> <p>-공통점도 발견해보도록</p>	<p>-퍼포먼스가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오이리트미는 내면의 감정과 무의식적인 직관이</p>	모듬 학습	활동지	<p>학생들의 의견 중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방법으</p>	

		<p>한다.</p> <p>-활동지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적어보고 두가지를 체험해본후의 느낌을 적어보도록 한다.</p> <p>-학생들의 생각을 종합하여 부연 설명하여 주고 두 가지 표현방식이 함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문해 본다.</p>	<p>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등장하게된 이유는 다르지만 두 가지 표현방식 모두 종합예술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안다.</p> <p>-앞서 두 가지 표현방식을 체험에 본 것을 바탕으로 조별로 모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본다.</p>			<p>로 해도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곡한 곡에 퍼포먼스를 결합하도록 한다.</p>	
		<p>-조별로 음악과 율동을 결합한 내면의 표현방식의 틀 위에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큰 테마를 정하도록 한다.</p> <p>즉,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 이성과 감성이 조화 이루고 좀 더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p>	<p>-오이리트미의 음악과 색 율동, 리듬, 그리고 퍼포먼스의 다양한 전달 방식,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하여 조별로 연습한다.</p>			<p>차시가 더주어지면 수업시간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홈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한다.</p>	
정리	차시예고	<p>-다음시간 수업목표와 진행할 내용을 안내해 준다.</p> <p>-지금까지 작성한 활동지와 노트, 감상기록지를 가져오도록 한다.</p>	<p>-선생님이 안내해준 정보와 내용을 인지한다.</p>			<p>선정된 음악과 의상은 조별로 준비해오도록 한다.</p>	

본시(3/3)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2. 표현 미술과 인간 <몸으로 표현하기>	대상	3학년- (평균 40명)	장소	미술실, 강당, 운동장
학습 목표	1.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행위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2. 주제에 맞게 그 둘의 특징을 조화시키고 창의적인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형태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비 고
		교사	학생				
도 입 (2 분)	출결확인	-출결확인 및 인사	-인사	전체 학습		수업목표 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주의집중 을 하도록 한다.	
	준비물확 인	-조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확인한다.	-지난시간에 체험한 내용을 회상한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개 (40 분) 전 개	조별로 활동지 발표	-지금까지 정리한 활동지를 조별로 2명씩 발표하도록 한다. -조별로 구상한 오이리트미 퍼포먼스를 학교 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퍼포먼스와 오이리트미를 체험한 느낌을 글로 서술한 활동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자신이 속한 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연습과정에서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점과 좋은점들을 이야기한다.	전체 학습	활동 지	-감상 기록지는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	
	조별토의 및 마지 막 연습	-조별로 모이도록 하여 함께 창의적으로 구상한 오이리트미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연습해 보도록 한다. -음악장치를 점검하고	-수업시간과 홈프로젝트를 통해 연습한 오이리트미 퍼포먼스를 조원들끼리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어 본다. -원하는 장소로 가서 연습한다.	모둠 학습	음악 장치	-자신의 감정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동시에	

		<p>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작동할수 있도록 한다.</p> <p>-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학생의 성향과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p>	<p>-음악과 율동에 어울리는 옷의 색으로 갈아입는다.</p>			<p>조별로 수행한 활동인 만큼 조원들과 자신의 행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p>	
	발표 및 평가	<p>-2분 동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조별로 구상한 오이리트미 퍼포먼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p> <p>-교사는 그 마지막 발표의 표현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의 내용과 학생의 성향과 변화, 공동체의 참여태도와 자기 감성표현을 고루 반영한다.</p> <p>-큰 태제는 조별로 정해져 있지만 신체를 움직이는 순간에는 음악에 몸을 맡기도록 한다.</p> <p>-친구들의 작품을 주의 깊게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본다.</p>	<p>-자신이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진행한다.</p> <p>-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신체로 표현하고 음의 높낮이를 신체로 표현해 보는 등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어 조화로움을 몸으로 익히는 오이리트미를 발표한다.</p> <p>-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맘껏 발휘하여 독창적인 행위를 표현해본다.</p> <p>-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몸을 맡기고 음악을 느끼면서 동작을 하도록 한다. 외운 것을 기억해 내는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신체로 발산되도록 한다.</p>	모듬 학습		<p>-기존에 시도된 수업이 아니므로 정답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자유롭게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된다.</p> <p>-부족한 것이 모이는 모습마저도 그 학생이 가진 순수한</p>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정신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오감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한다.			모습이며 그 아이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정리	총평	-다 같이 등글게 둘러앉아 조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보고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지켜본 내용과 소감을 알려주고 수업의 가치와 의의를 다 같이 정의해 본다.	-주제선정의 이유, 색상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주제가 오이리트미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지 발표한다. -오이리트미 퍼포먼스 창작 발표 후 느낀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모둠 학습	개별 노트	틈틈이 기록한 개별 노트에 친구들이 자신을 평가한 내용을 적고 사전을 첨부한다.	

현대의 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통합적인 사고,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연구, 적용하고 있다. 이 수업은 미술을 비롯한 문학과 연극, 음악, 무용, 문화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을 학습대상으로하여 ‘2009 고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편찬된 중학교 통합 교과서에 있는 2단원의 ‘몸으로 표현하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미진사에서 출판한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교과서로 1, 2, 3을 함께 포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3차시로 구성해 보았다.

예시한 동기유발 방법 및 교수-학습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경우 각기 다른 현장의 여건과 교사 능력에 따라 실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발도르프학교 교육과정이 우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발도르프학교는 교육에 대하여 예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교육과정 내의 활동들은 인간이해를 통한 예술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슈타이너는 교육활동을 학생과 함께 하는 하나의 예술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실제에서도 예술교과 영역을 학교 학습활동의 기초로 사용한다.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이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이해를 위한 미술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미술 교과 성적을 위한 기교와 테크닉을 배우기 위하여 미술학원, 서예학원 등을 전전공공하는 반면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기교와 테크닉보다는 인간 이해를 위한 선그리기 활동과 색채 경험을 풍부하게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포르멘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다른 과목과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어 지식과 함께 내면속에 존재하는 완전한 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채화 교육에서는 색채를 사용한 평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색채 경험을 통하여 형태를 위한 색채가 아닌 색채에 의한 형태를 추구하며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수공활동을 통하여 실뜨기나 목공예, 옷이나 가방 만들기 등의 삶의 직접적인 체험교육은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진다.

둘째, 미술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서 통합한다.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미술적 영역에 해당하는 선묘 활동과 색채 경험을 학습을 위한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술이 하나의 교과로서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육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저학년 시기에는 국어의 언어 습득, 수학의 수 개념 이해 등에 함께 적용되어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셋째, 포르멘이나 수채화, 수공활동 등의 미술교육이 일정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이 아니라, 슈타이너가 제시한 기질과 인간발달의 단계적 형식을 바탕으로 체계성과 목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술이 가진 가치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스며들도록 지도한다는 점과 개인의 잠재력과 특성을 끌어내주는 수업을 하는 것이 발도르프학교가 우리나라 공교육 교육과정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 교육예술론에 따른 발도르프학교의 교사의 역할

우리나라 공교육 중등과정에서 발도르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주도해 나갈 교사의 준비도이다. 그러나 입시 편중의 현 교육제도 안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예술적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교사들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 부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제도안에서 굳혀진 인습적인 태도의 문제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는 경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예술학습의 경험을 갖는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예술학습의 주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에 의해 조직화된 주지교과 위주의 암묵적인 강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미적 경험들을 사장시키고 교사들은 현실안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예술과목을 부수적인 교과로 생각하는 교육 풍토속에서 발도르프적인 예술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교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사회의 비전을 가질 우리의 학생들에게는 이성적인 인지력의 성장과 더불어 타자를 이해하고 자연과 문화를 향수할 줄 아는 감성적인 소통력 또한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정신적인 유산이다. 즉 이성과 감성을 통한 미적인간의 육성이 지금의 예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상과 그들의 역할방식은 자기 방식의 교수와 거듭되는 수업의 반복속에 빠진 우리나라 공교육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술교사들의 정의적인 면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발도르프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발도르프학교에서 교사는 학교를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가 하루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명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또한 일과 중에 이루어지는 에포크 에서는 교사가 자유롭게 가르친다. 해마다 가르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물론 발도르프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방침일 뿐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

그러한 이유로 발도르프학교 교사들은 의지, 감정, 사고가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자율성, 유연성, 창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고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정해지만 발도르프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정이 모두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8년 동안 담임의 역할을 하고 예술로써 수업을 진행한다. 학년이 진급해감에 따라 해마다 다른 교과를 가르치고, 또 교과를 주기집중 수업으로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발도르프 교사들은 지속적인 자기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수업이 예술활동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발도르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발도르프학교는 교사들의 합의에 의한 자치로 유지된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의 과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다. 교장이 따로 없으며, 모든 교사는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것을 위해 발도르프학교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에 교사들의 협력을 두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교사회의를 통해 이것을 실현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규정되고 의사전달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계적인 구조보다 오히려 자유와 자기책임이 있는 곳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라마다 발도르프 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이 있다. 발도르프학교 교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범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것은 발도르프학

교 교사가 될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지 발도르프학교 교사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발도르프교사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2~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⁷⁴⁾

나. 영혼의 예술가로서의 교사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 파악하고 ‘교육예술(Erziehungskunst)’이라고 한다. 교육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하고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형태가 된다. 발도르프학교에서의 예술적인 교육은 예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창조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예술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술처럼 교육을 이해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교사 자신이 풍부한 예술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술가로서 자각하는 일이 요구된다. 슈타이너는 교사, 특히 아동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영혼의 예술가’라고 부른다.

교사는 예술적인 것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고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교사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슈타이너는 이에 대해 교사는 첫째, 인간·아동 본성에 대한 인식, 둘째, 세계 본질에 관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답한다. 교사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인지학적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술가로서의 발도르프학교 교사는 학생을 세심하고 민감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체화된 지식에서 출발할 때 가능하다. 이 때 비로소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르쳐질 수 있고, 학생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안에 창조적 힘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다.⁷⁵⁾

74) 정윤경(2002),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교육』

75) 정윤경(2002),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교육』

III. 결 론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우리교육도 견잡을 수 없이 인성의 붕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서 쉴 시간도 없이 3, 4군데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지금 학교의 최대목표는 얼마나 많은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보내느냐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교육은 물질문명의 세계 속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계적 인간형성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다. 지금도 각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고 바로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있다.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는 장소, 선발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위주,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말이 교육전반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결국 교육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육의 절대목표인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있으며 학생들의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삶을 다루어 인간다운 작용을 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운 인격의 완성에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인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슈타이너 교육철학에 기반한 발도르프학교의 교육방법이다. 발도르프학교는 예술로써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전인교육을 주장하였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표현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방법으로 포르멘, 습식 수채화, 오이리트미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슈타이너 교육 철학을 미술교육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교육관과 발도르프학교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 발도르프학교에 적용된 사례와 독일 발도르프학교 프로그램과의 비교, 교사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안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

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방식의 수업으로 수업지도안을 재편성하여 지식축적 시대에 야기되는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슈타이너 교육철학을 중등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으로 새롭게 구성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

첫째, 다양한 선의 체험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과 자연의 형태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단계별 수업으로 모나지 않은 유연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수공활동으로 직관적인 연계를 강화시켜 준다. 이때 감각은 직관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학생은 세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색과 굴곡, 금속, 유리, 진흙, 직물과 나무 등을 만지고 다루면서 총체적인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수동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성향으로 발전하며, 개별적 미의식을 발견하고 계발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넷째, 예술작품이 지닌 가치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을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소통하는 법을 깨우친다. 그로 인해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수업으로 평소에 관심 없던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갖게 되고, 반대로 미술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동기유발이 되어 자신에게 유의미한 수업으로 즐겁게 수업에 임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에게 내제된 잠재력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고른 발달이 가능하다.

내년에 시행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탈학문적인 성격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여전히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창의인재라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 비평능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제시된 교육과정이 이론에만 머물지 말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나의 수업계획안이 새롭게 도입되는 개정 교육

과정에 하나의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슈타이너는 인간과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우리교육에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온다. 학교교육이 본래 지향하고 있던 모습을 회복하고, 풍부한 감성표현의 계기와 미적체험간의 통합적 교류를 통해 다가올 교육과정의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선조, 김정환, 『교육철학』, 서울 : 박영사, 1995.
- 김정환, 『현대의 비판적 교육이론』, 서울 : 박영사, 1995.
- 곽노의, 『21세기 유아교육 모델로서 자유 발도르프 유아 교육』, 서울: 밝은누리, 1999.
- 정운경,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2004.
- 조경원 외, 『서양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이명환·곽노의, 『몬테소리 교육학과 발도르프 교육학 : 두 교육학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본다.』, 서울 : 밝은누리, 2001.
-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 역,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서울:밝은누리, 1996.
-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 역,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서울: 밝은누리, 1998.
- 고야스 미치코, 김수정 역, 『슈타이너 학교의 예술로서의 교육』, 서울 : 밝은누리, 2003.
- 요하네스 키르쉬, 이정희 역, 『발도르프 교육학 ;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학 입문』, 서울 : 아르케, 2004.
- 요헨 부스만 · 힐데가르트 부스만, 최정은 역, 『우리 아이는 발도르프 학교에 다녀요』, 서울 : 밝은 누리,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2007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미술』, (주)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1 2 3』, (주)대한교과서.

< 학회지논문 >

- 고영규, 「슈타이너학교」, 한국교육포럼, 2004.
- 권준범,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방법 연구」,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1.
- 김성숙, 「R.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한국조형교육학회, 1997.
- 김성숙, 「R. 슈타이너의 교육예술 I」,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1998.
- 김성숙, 「R. 슈타이너의 교육예술(II)」,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1999.
-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I)」, 한국미술교육학회, 2000.
- 김성숙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I」,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2.
- 김성숙, 「포르멘의 원리에 기초한 형태소묘 지도법의 개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05.
- 김성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 대경교육학회, 2002.
- 김정희, 「슈타이너 교육이념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조형교육학회, 2002.
- 박의수, 「루돌프 슈타이너와 발도르프교육」, 안암교육학회, 1994.
- 전일균,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교육철학회, 1998.
- 전일균, 「발도르프교육학의 대안학교적 의미연구」, 교육 철학회, 2002.
- 정운경,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회, 1998.
- 정운경,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 연구』, 제3권, 제 1호, 1998.
- 정혜영,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사상적, 이론적 기초: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한국교육학회.

< 석, 박사 논문 >

-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의 기초 : 인지학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윤경,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지영,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반책익, 「학교교육에서 자유의 의미와 한계-서머힐 학교와 발도르프 학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안경훈, 「발도르프학교의 습식수채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엄점숙, 「초등미술교육에서 자유로운 인간내면의 표현을 위한 방법적접근」, 한국교원대대학원, 2002.
- 이진형, 「발도르프학교교육의 특징 및 한국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고찰-초등학교 미술교육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2004.
- 정미옥, 「발도르프학교의 교육사상에 의한 초등 미술교육 지도 방안 연구-습식 수채화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7.
- 조연제,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2008.

< Rudolf. Steiner의 저서 >

- R. Steiner, An Autobiography.trans. Stebbing Rita. Blauvelt : Steiner Book, 1977.
- R. Steiner, The Child's Changing Conciousness & Antroposophic Press, 1988.
- R. Steiner, Theosophy. trans. Monges Henry B, New York, Antroposophic Press, 1971.
- R. Steiner, Eurythmy : The Art of Movement. London :

Anthroposophical Pub, 1924.

R. Steiner, Die Erziehung des Kindes vom Gesichtspunkte der Geisteswissenschaft, Dornach/Schweiz, 1984.

<웹 사이트>

<http://www.gurmsan.kr> (구름산 학교)

<http://www.gcfreeschool.kr> (과천 자유학교)

<http://cafe.naver.com/steinereduart> (교육예술 연구소)

<http://www.tore.kr> (또래숲속학교)

<http://blog.naver.com/waldorfedu> (발도르프 학교 준비 모임)

<http://www.appletreeschool.kr> (사과나무 학교)

<http://cafe.naver.com/steinereduart> (이우학교)

<http://www.waldorf.or.kr> (한국 슈타이너 교육 협회)

<http://www.steinercenter.org> (한국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터)

<http://www.gforest.or.kr> (푸른숲 학교)

<국 문 초 록>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윤 송 희

오늘날 세계적으로 산업화, 현대화가 가속화 되면서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듯이 규격화된 제도 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또한 전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종래의 주입식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실용주의에 치우친 교육 등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제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미술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슈타이너 철학에 기반한 발도르프(Waldorf)학교의 교육이다. 특히, 공교육 제도 속에서 ‘전인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발도르프 교육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슈타이너의 ‘인간으로서의 미술교육’은,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내면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데 있어 ‘신체, 영혼, 정신’이 통합된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슈타이너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예술’이며, ‘예술이 곧 교육’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교육의 화두를 ‘인간’으로 되돌리고자 한 ‘인지학(Anthroposophy)’을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지평을 열었으며, 모든 교육과정이 예술로써 창조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모든 교수자는 ‘예술가’가 되어야한다는 교사관에 대한 분명한 제시는 발도르프 학교만의 독창적인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대안적 교육은 비인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예술을 통한 감성의 회복’의 좋은 지침이 된다. 또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통한 ‘미적인간’의 육성이 목표인 미술교육에서 ‘오이리트미’, ‘포르멘’, ‘습식 수채화’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에 적합한 대안점이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고정적으로 미술과목을 정해놓고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통합적인 교과 속에서 미술을 바탕으로 살아 숨 쉬는 교육을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탈학문적 통합교육’의 의미를 실현하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언어의 개념화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 하고 내면화 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이야말로 전인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미술교사는 진정한 미술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 더 나은 교육적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중심에 있는 미술교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도르프학교의 교육 방법을 우리나라 국·공립 중학교 미술수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학습지도안을 재구성 하고 미술수업의 새로운 변화와 대안점을 연구하였다.

지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미술교육의 문제는 하나의 이유로 지적될 수 없다. 교육정책, 교육과정, 물리적 환경,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인식 등이 중첩된 총체적 원인들로 기인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미술에 대한 가치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주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간절히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슈타이너 철학에 기반한 발도르프 학교교육의 학습방법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전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rt based on Rudolf Steiner's Theory of Anthroposophical Education and Ar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Art Education
Song-Hee Yoon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worldwide, quite a few problems result from the standardized education which is similar to a factory where they produce goods. Domestically, school education is faced with a comprehensive crisis. That implicates criticism at chronic aspects of education inclining to traditional cramming system, test-driven curriculum and utilitarianism. Art education is no exception as it cannot but co-exist with the system. Nevertheless, efforts to seek for new educational alternatives continue at diverse levels. One of such efforts is the Waldorf School's education based on Steiner's philosophy. In particular, Waldorf education has come into the spotlight throughout the world in the sense that it can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Rudolf Steiner's 'art education as human' is important as it presents an integrated methodology embracing body, soul and spirit to maximally improve human potential and to express inner world visually.

Steiner states that every education is based on 'art' and that 'art is the very education.' His educational philosophy has opened a new horizon for education suitable for students' development on the basis of anthroposophy that attempts to shift the subject of education to 'human,' emphasizing every curriculum should be created as an art. Further, the original educational ideology specific to the Waldorf

School lies in its explicit perspective on teachers that every teacher should become an artist. Steiner's alternative education becomes a good guide for 'recovery of emotion through art' in the depersonalized modern society. In addition, in art education aiming to foster aesthetic human beings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in reason and emotion, 'eurythmie', 'formen' and 'wet-in-wet watercolor' programs are appropriate alternatives.

In Waldorf School, they do not teach art as a fixed subject but provide education, where art is alive in every integrated subject. This is a good example of realizing the meaning of 'extra-disciplinary integrated education' that the domestic '2009 Revised Curriculum' pursues. It is the integrated education that guides students to reconstruct and internalize knowledge meaningful to themselves rather than drive them to accumulate knowledge as part of simple conceptualization of language. Such integrated education can be a foundation for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Within the integrated education system, art teachers should seek the value of true art education, better educational alternatives for realizing tru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nd directions the art subject at the core of such integrated approach should take. For that reason, the present study reorganized a lesson plan applying the educational method of Waldorf School to art class in domestic national and public middle schools and examined new changes and alternatives in art classes.

Multiple causes have led to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biased toward intellectual aspect. Likewise, there are more than one reason for problems found in art education. General and overlapping factors such as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physical environment and public awareness including teachers and parents result in problem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may be the perception of value of art underlying the public consciousness. Hence,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change the subjective perception present behind the system. In that sense, the learning method adopted by the Waldorf School based on Steiner's philosophy is expected to bring positive effects to a shift in domestic art education.